

사무엘상 1 장

1. 마태福音에 나오는 族譜는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되어있으나 누가福音에는 '누구 이상은 누구요' 하는 식이다. 1절을 마태福音 식으로 고쳐보자.
(숨)은 (도후)를 낳고 (도후)는 (엘리후)를 낳고 (엘리후)는 (여로암)을 낳고 (여로암)은 엘가나를 낳았더라.
(숨) - (도후) - (엘리후) - (여로암) - (엘가나)
2. 이 글이 써진 때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祭司長으로 거기 있었더라.
3. 누군가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公平하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그런 느낌은 어떤지 핀트가 약간 빗나간 느낌이다. 1)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公平하시다고 느꼈을까?
남편의 사랑을 덜 받은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배로 받았다.
- 2) 왜 핀트가 약간 빗나갔다고 하는지 說明해 보자.
공평하신 하나님께 한나가 울며불며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평하심을 拒否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으나 客觀化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讚揚한 것은 자신의 告白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향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困難하지 않을까? 신 32: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說明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나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고 어떻게 이겨 나갔는가를 설명하는데 焦點이 있다. 너무 枝葉의인데 觀心을 기울이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아무 데나 적용시키는 버릇도 좋지 않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認定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전혀 怨望하지 말고 감사해야 옳다. 공평하신 하나님께 더 달라고 때를 쓰는 한나는 참 나쁘다.
4.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表現이 이곳에 適當하지 않다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까? 예쁜 부인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짓국은 하나님? 嫉妬가 많은 하나님?
자식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5. 브닌나가 한나에게 무슨 말로 激動케 했을까?
6. 자식이 없는 한나의 아픔을 證言할 표현 찾기 //////////////////////////////////
7. 엘가나의 錯覺은 무엇인가?
남편이 열 아들보다 낫다.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야 한다.
8. 실로에 음식점이 많은가? 왜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음을 의미한다.
9. 祭司長 엘리가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4장의 길궐 자기 의자와 비교) 잘하는 짓이 아니다. (聖幕에는 제사장용 의자가 없다)
10. 엘리 祭司長은 祭司長으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많다. 한나와 關聯하여 어떤 非難을 받겠는가?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분간 못하는 제사장
11. 엘리 祭司長이 無能한 祭司長이라면 이렇게 無能한 祭司長의 한 마디에 한나의 놀라운 反應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可能할까?
다시는 愁色이 없으나라,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까.
수색 : 근심스러운 표정
12. 同寢하기 전에 祈禱했을까? 안 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13.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말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지어졌다. 正確한 語原상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이다.
14. 誓願 祈禱를 하기는 쉬워도 實行하기는 어렵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그대로 履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던 여자가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 (아들이 좀 더 크거든,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겠나)
15. 남편 엘가나의 信仰을 엿볼 수 있는 句節과 信仰的이라고 할 수 없는 면은?
23: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3: 每年 실로에 올라가서 萬軍의 여호와께 敬拜하며 祭祀를 드렸는데 信仰的이라고 할 수 없는 면: 축첩
16. 한나가 자신을 紹介하는 말이다. ()에 알맞은 말은 넣으시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17. 本文에는 없지만 한나의 이 말을 듣고 엘리 祭司長이 自身을 紹介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했던) 제사장입니다."
18. 26절에 나오는 盟誓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19. 한나가 이런 苦痛을 겪게 된 것이 偶然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故意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밝혀주는 句節은?

5: 여호와께서 그로 孕胎치 못하게 하시니

추가.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매년 절기를 지킴(정규 예배시간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

20. 사무엘의 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엘가나: 두 아내를 가짐,

브닌나: 한나를 격동케 하여 기도하게 함

한나: 괴로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음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민하는 여인들: 사라, 리브가, 라헬, 마노아의 아내, 한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어느 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2 장

1. 한나의 祈禱가 우리 祈禱와 다른 점이 있다면? 즉 1장의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
1장에서는 아들을 하나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했을 것 그런데 2장의 기도는 간구는 없고 온통 감사로 가득찬 기도
2.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祈禱가 그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 하나님을 經驗했기 때문 →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
(하나님의 主權的 役事を 수용하게 될 정도)
3.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했던 그녀가 아들을 얻고 하는 感謝의 祈禱속에 ‘아들을 주셔서 感謝합니다’라는 말이 있는가? 왜 없을까?
원한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로 인해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준으로 변해버렸음.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셨음
4. 3절의 ‘甚히 驕慢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倨慢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말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가?
브닌나가 아니다. (이 기도가 브닌나를 염두에 둔 기도가 아니다) 모든 사람: 그 이전의 원한을 품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에게 그 이전의 원한이나 슬픔은 안중에 없다. 브닌나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직도 이 기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5. 아들을 하나 달라고 울며불며 祈禱하던 것과 比較해 보면 祈禱가 너무나 變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抑止로 얻은 아들 하나를 聖殿에 바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狀態는 여전히 전과 같다. 이제 한나는 어떤 자세로 생활할지를 잘 說明해 주는 句節은?
6, 7(죽이든 살리든)
6. 先知者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逃亡한 사건을 參考해 보면 그보다 훨씬 앞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理解한다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을 斟酌할 수 있다. 그 事實을 念頭에 두고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자.
거룩하신 분, 唯一하신 분, 信實하신 분(반석·변함없음), 全知하신 분(지식의 하나님), 全能하신 분(모든 것을 主管 6:8: 세상의 主權자), 創造者, 審判者
7. 한나에게 成胎치 못하게 함으로서 是非를 걸었던 하나님의 意圖가 무엇인지 다음 글을 읽으며 생각해 보자.
‘아들을 하나 달라고 울며불며 祈禱하던 한나가 아들을 하나 낳고 어떻게 이렇게 변해 버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그것은 맛이 있다고 說明만 들은 우리와 직접 먹어본 사람과의 차이다. 신앙의 成熟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交際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個人的으로 알 수 있다. 하박국에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대들었던 결과가 그러하고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하나님과 담판을 벌인 결과 그렇고 아브라함의 生涯도 그렇고 옴이 당한 苦難도 그렇다.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얻은 것도 한나의 告白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8. 믿지 않는 家庭에서 혼자 敎會다니며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學生은 훌륭하게 믿음이 자라는 반면에 잘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은 믿는 등 마는 등 하는 境遇를 本文에서 찾아낸다면?
한나와 엘리의 아들들
9. 어른을 처음 만날 때는 어려워하다가도 자주 接하게 되면 위아래 分擘도 잘 안 되는 行動이 튀어나오는 境遇가 많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와 祭祀를 蔑視하게된 根本 動機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12)
10. 本文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祭司長이 되어 있으니
11. 어른과 함께 食事を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혼이 났다. 食卓에서 지켜야 할 가장 基本的인 禮儀지만 아직도 그런 집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다. 本文 중에서 이런 버릇없는 짓거리를 찾는다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가는 일
세 살 갓고리로 함부로 찢러대는 행위는 다른 설명이 필요함: 여기에 記錄된 祭祀는 和睦祭인데 祭祀를 지낸 후 祭司長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고기의 部位(레 7:28-36 요제로 드려진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와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을 임의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12. 엘리 祭司長이 사무엘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엇이랴 하는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드린 아들(=사무엘)
13. 엘리 祭司長의 祈禱는 하나님께서 참 잘 들어주심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원인이 엘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지만)

14. 하나님의 作定하심이 아니라도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도록 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 1)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생각이 없다.
- 2) 어릴 때 가르쳐 놓지 않고 나이 들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

15.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傳하는 內容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보자.

- 1) 과거: 애굽에서 구하여, 12지파 중에서 特別히 祭司長으로 삼았다.
- 2) 현재: 나보다 아들들을 더 重視하며 나를 蔑視한다.
- 3) 미래: 約束 取消, 새로운 祭司長을 세울 것, 나를 尊重히 여기는 자를 나도 尊重히 여길 것, 老人이 없을 것,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 모두가 복을 받아도 너는 한탄을 당할 것 (하나님의 처소가 한탄을 당하면 그것이 곧 제사장의 한탄)

16. 새로운 祭司長: 내 壇에서 끊어버리지 않을 너의 사람, 나를 위한 忠實한 祭司長,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 그가 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永久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念頭에 둔 것 같은데 1) 레위 지파가 아닌 사무엘을 祭司長으로 세워도 되는가? 2) 사무엘이 아니라면 누구를 念頭에 둔 것 같은가?

- 1)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웠으나(1:1) 族譜를 중시하는 대상 6:33-38에 보면 레위인이라고 나와 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하는 레위인이었던 모양이다.
- 2) 사독: 正統적인 제사장 가문, 合法的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貢獻(왕상 1:45), 엘리의 후예인 아비야달 대신 大祭司長에 任命됨(왕상 2:27, 35)

예수 그리스도: 完全하고 永遠하신 祭司長 (히 10:1-14)

17. 平生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獻身하고 奉事한 목사가 停年 隱退를 하고나서 糧食을 구하기 위하여 說教를 좀 하게 해달라'는 付託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먹고 살기 위한 手段으로 牧師직을 택한 사람이라면 덜 아프겠지만 하나님께 純粹한 마음으로 獻身한 牧師님이라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되리란 말씀은?

?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함 (36)

18. 300년 정도 되는 사사시대도 하나님을 잘 섬긴 시기는 아니다. 엘리가 祭司長으로 在任하던 시기에도 信仰의으로 형편없던 시절이라는 것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은?

祭司長(혹은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祭祀를 輕率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오히려 祭祀지내는 사람이 더 規則을 지키려 하는 판

19. 사무엘이 敬虔한 信仰인으로 자라날 수 없는 條件이 있다면?

엘리는 無能하고 先生이랄 수 있는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르칠 父母도 同僚도 없고, 會幕門에서 隨從드는 여인들이 가르친다? 매년 1차 만남은 어머니가 가르친다? (말로 가르치니 반항하고 행동으로 가르치니 따르더라)

20.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은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다. 달리 더 기분 나쁜 일은 무엇인가?

祭司長이면서 사사인 엘리에게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다. 기분 나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내가 도리어 당하다니' 그가 이렇게 無能한 祭司長이된 原因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죄,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은 점

원래 大祭司長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有力한 엘르아살-비느하스의 系列이 말았으나, 엘리가 이다달의 後孫이면서 祭司長과 사사의 職分을 遂行했다는 점에서 그는 뛰어난 인물이거나 手腕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문제로 完全히 망해버렸다. 며칠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자식문제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1. 1-2장의 한나의 생애에서 起承轉結의 起에 해당하는 내용은?

브닌나는 子息이 있고 한나는 無子하였더라.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였더라.

起: 브닌나는 子息이 있고 한나는 無子하였더라

承: 브닌나가 격동, 한나가 기도했다.

轉: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 바쳤다.

結: 추가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다.

범과(犯過): 잘못을 저지르게 하다.

표징(表徵):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표시 (경고적 전조)

22. 높아진 것은 무엇인가?

마음, 뿔, 입이 열림

23. 하나님 앞에서 떠들거나 말을 많이 하는 行爲를 1) 무엇이라 하는가? 2) 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1) 驕慢, 倨慢 2) 여호와께 지식의 하나님이라.

24. 對照

勇士 ↔ 넘어진 자, 裕足하던 자 ↔ 주리던 자, 孕胎치 못하던 자 ↔ 많은 자녀를 둔 자

25.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責望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엘리의 집안을 責望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한나가 성태치 못할 때부터 작정된 일

사무엘상 3 장

1.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饑饉을 땅에 보내리니 糧食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渴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飢渴이라(삼 8:11) 이 말씀을 참고하면 엘리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說明해 보자.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稀貴하였다고 한다. (말씀이 稀貴하고 異像이 잘 보이지 않음)

여호수아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아보자. 사사시대의 끝이니 300년 정도

2. 아이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12살이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었다. 그 이유는 성년으로 인정이 된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聖殿에서 討論할 때도 아마 12살?

3. 聖幕안에는 정금으로 만든 燈臺가 있고 여기에는 燭이지 않고 등불을 켜야 하는데 저녁에 켜면 아침까지 계속 탔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가?

새벽이란 뜻

4. '자기처소'와 '하나님의 櫃가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라는 表現을 現代의으로 고쳐보자.

私宅(고참 제사장이 거주)과 敎會(수습제사장이 근무하는 당직실?)

'하나님의 櫃가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라는 것이 지성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제사장도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에서 잠을 잤다고 할 수는 없다. 광야에서 임시로 지은 건물과는 달리 한 곳에서 300년이 지났으니 附屬 건물에 생겼을 것이다.

5. 사무엘이 처음 엘리에게 달려갈 때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 밤중에 화장실 가실려나?

6.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는가?

네 번 (8번 = 두 번씩 × 4번)

7.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共通點이 있다면?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아직 어려서 ↔ 알만한 자식들이 모르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 ↔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8.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나보다.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어떨까?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이웃과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온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9. 엘리의 집안에 懲戒가 있을 것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싫어버린 바가 되었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고 계속해서 질문하심. 끝낼 생각이면 질문이 없어야) 어디 있느냐? 누가 고하였느냐? 먹었느냐? 먹었느냐? - 하나님에게도 감정적인 면이 있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드리면 기분파가 될 수도 있음

10.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의 審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模襲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무섭다(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외롭다. 쓸쓸하다(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

위엄이 있다(영 영터리).

11. 엘리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아는 죄악 = 자기 아들들이 審判을 自招되 禁하지 아니함

12. 사무엘이 하나님의 啓示를 세세히 말해주었을 때 엘리의 態度는 逆으로 그가 罪가 더 많음을 示唆해 준다. 어째서 그런가?

그의 반응은 상당히 신앙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자가 자식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행한 것보다 더 죄가 크다.

13. 이스라엘 전국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14.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말발이 섰다는 뜻인데 그의 말이 백성들에게 먹혀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15. 이 장의 핵심을 '사무엘의 소명'이라 하면 되겠지만 어딘가 미진하다. 이유는 본 장에 있는 시대적인 큰 변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를 찾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제목을 붙여보자.

엘리의 시대(말씀이 희귀, 이상이 흔하지 않음)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이상이 보

임가 열릴 것을 예고함 - 새 시대의 도래? 여명?

16. 이 장에 보이는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엘리: 변화를 일으킨 동기를 제공, 사무엘: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못했다(7), 하나님: 오래 전에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실 때부터 이미 일을 시작하셨음

17. 선지자가 있고 유능한 제사장이 있는데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목사도 많고 신앙서적도 너무나 많다. 방송설교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때에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예가 있을까?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목이 마를까?

많은 말씀이 있어도 핵심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8.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무엘을 불렀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네 번 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임하여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음성만 들렸고 임하시지는 않으셨다. 진짜?

여전히 임하고 계셨지만 사무엘이 알지 못했을 뿐이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임하여 계셨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비단 이 뿐이 아니다.

19.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란 영적인 눈을 말하는가? 육적인 시력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무엘이 세 번이나 뛰어왔음에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영적인 어두움의 증거? ↔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지금 새삼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이미 그 전에 다 어두워진 상태가 아닌가? 또 사무엘의 전하는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진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라.

여호와와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 이상 (예언, 묵시, 환상,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 완전하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사무엘상 4 장

1. 4장은 비록 패했을망정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 이야기다. 전쟁 이야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 중에 무엇이 없는가? 그 대신 전쟁의 어떤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가?

전쟁의 동기(원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 없이 설치다가 패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요소는 대략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음)

2.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전투에 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3. 전쟁 도중에 법궤를 가져온 것은 그릇된 방법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때 하나님을 찾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았던 바울처럼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배우자.)

4. 戰鬪에 진 이스라엘이 왜 法櫃를 가져왔을까? 外國에 援兵을 要請하든지, 아니면 軍士를 더 모아서 오지 않고?

옛적에 조상들이 法櫃를 앞세우고 戰爭을 치르고 요단강을 건넌 일을 記憶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아는 이야기)

5. 그런데 그 法櫃가 왜 效力이 없는 것일까?

法櫃는 하나님의 臨在의 象徴이다. 하나님이 떠난 法櫃는 法櫃가 아니다. 法櫃를 呪術的, 혹은 迷信의으로 사용함. ⇔ 얼마나 많은 사람이 法櫃를 魔術箱子처럼 使用하고 있는가? 聖餐式 때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一般, 십자가 모형, 성경책, 교회에 대한 소속감, 믿는 집안, 퇴마록 ⇔ 신앙의 符籙化

6.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출애굽 사건 때의 그 하나님, 8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壓制한 것처럼 자신들이 종이 되는 것, 9

7. 이 戰爭이 어떻게 일어난 전쟁인지 正確하게는 알 수 없다. 아마 斟酌컨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壓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인 듯하다. 어떤 根據가 있는가?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말고(9)라는 표현에서

8.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다가 도망간 곳이 두 군데로 나타나 있는데 어디이며 어떻게 다를까?

陣(본부가 있는 곳: 재편해서 다시 싸움), 帳幕(전쟁에서 이탈: 완전패배)

9.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게 된 動機는 무엇인가? 또 이스라엘이 敗北한 原因은 무엇인가(2, 3장 참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불어나 보자.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每番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犯罪가 原因이고 하나님의 責望 탓이지 블레셋의 勇氣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懲罰이 始作됨 (엘리 집안에 대한 懲戒 -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아야 하나?)

10. 이 전투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 가장 처참한 전쟁일 것이다. 어쩌서 그런가?

보병 30,000이 죽었고, 무엇보다도 법궤를 빼앗김

11.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어떤 예언의 의미가 있는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시작될 비극의 前兆 (序曲)

12. '원화하는 소리가 어찌이뇨?' 흔히 우리가 쓰는 말(경상도 판)로 바꾸면?

와 이래 시끄럽노?

13. 엘리가 비록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큰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신앙인인가?

(조그만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겁 없이 하는 말을 전부 수용한 것 - 3장)

전쟁터에 보낸 법궤를 걱정하고 있는 점(13)

자식의 죽음보다 법궤를 더 염려함(18)

14. 남편과 媿父가 죽고 자신도 죽는 판에 곁에 섰던 사람들의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판국에도 아들만 낳으면 두려워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들의 출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겼음.

15. 비느하스의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16. 4장에서 가장 슬픈 사실 하나를 指摘한다면?

하나님 없는 법궤 (하나님 없는 교회, 형식만 남은 신앙)

17. 법궤를 합부로 옮겨서,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탓) 징계를 받게 될 때 태어난 아이를 가리켜 '이가봇(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이라고 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아이를 낳으면 무엇이라고 지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 이 이름마저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주심.

18. (O, X) 문제

1)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나이 많고 비둔한 탓이다. ()

2)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게 된 원인은 2번이고 방법은 1번이다. 둘 다 옳다.

2번은 1차적인 원인이고 1번은 2차적인 원인이다.

충격을 받더라도 건강하고 동작이 재빨랐다면 그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궤(櫃)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사 가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포로로 잡혀 가듯이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 가장 싫은 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함께 있었으니 (4: 불효하는 자식이 싫어서 남의 집을 돌아다니는 노인네 꼴, 아관파천)

향오(行伍): 군대를 편성한 행렬, 전투 대형

원화(喧譁): 지필이며 떠들

실로: 지명 -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행정과 종교적인 중심지

사무엘상 5 장

1. 이스라엘 神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心情이 어떠했을까? 1)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堂에 갖다 둔 그들의 심정을 想像해 보자.

世上에 다곤보다 센 신이 있으면 나와봐! 氣高萬丈 (이스라엘의 신의 위대함을 알고, 한때 승리를 포기
까지 했던 터라 더욱 신이 났을 것이다)

2) 그들의 그런 期待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곤이 옆드러짐, 머리와 손목이 切斷된 채

3) 이스라엘 신 앞에 맥없이 꼬꾸라지는 다곤의 模襲을 보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겨우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다곤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지. (점쟁이들이 예수 鬼神이 제일 세다고 認定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더 위대한 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아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오만하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다)

2. 쓰러진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행위는 그 바탕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偶然이다. 하나님의 懲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다곤의 祭司長들이 後孫들에게 절대로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단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說明했을까?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혼이 난 곳이라고는 안했을 것이다. 적당히 다른 이유를 둘러댔을 것이다.
아마 '복 나간다'라고

4.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것을 보면 무슨 놀이가 생각나는가?

시한폭탄 돌리기

5.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能力이 없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블레셋에서는 능력이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궤가 能力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님 없는 궤)

블레셋 사람들: 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認定했기 때문이다.

6. 선생님 중에서도 고함 잘 지르고 합부로 욕하는 사람은 무섭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다. 어째서 그런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冒瀆을 받기까지 하시는 분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참고 이웃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자식이 매 맞는 것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아버지: 남의 유리창을 깨고 야단을 맞고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가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나오면서 "내가 잘못하면 아빠가 이렇게 빌어야 한단다."라고 점잖게 한 마디 한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아버지다. "야 이노무 자숙아 ~" 고함부터 지르는 아버지가 무서워 보여도 진정으로 敬畏란 말의 무서움은 아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신 하나님

사무엘상 6 장

1. 法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象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었는데 제사장도 일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올 수 없는 至誠所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쓸쓸하다. 왜? 대책없이 블레셋 지방에 7달, 그것도 뜰에(난 외 주를 참고-이치상으로도) 돌보는 이 없는 뜰에 7달 放置되었다. (災殃을 가져오므로 뜰에 둔 것일 것)
 2. 戰爭에 이기고 이렇게 머리 아픈 境遇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原因은 무엇일까?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 이런 답은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고, 블레셋이 이긴 原因이 자신들이나 자기의 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懲戒하기 위한 道具로 쓰셨기 때문이다. ≥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 블레셋 方伯에게 對答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대답한 內容을 세가지로 整理해 보자.
 - 1) 贖愆祭를 드려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속죄제라는 말은 賠償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 2) 버티지 말라.
 - 3) 偶然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선 전혀 無知한 - 법궤의 운반은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 하는데 수레에 실은 점, 속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예물로 때운 점.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없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리한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받으셨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4.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이 드리는 贖愆祭와 方法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祭物대신 毒腫의 形象과 땅(블레셋 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음)을 해하는 들쥐의 형상을 만드는 것
 5. 금으로 만든 毒腫의 形象은 이해가 가는데 들쥐 형상은 왜 만들어 보냈을까? 블레셋에 내린 災殃이 쥐로 인해 發病한 毒腫이라고 볼 수 있다
 6.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災殃이 偶然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手段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느 것일까?
 - 1) 새 수레
 - 2)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 3) 젖 나는 소(수소가 아닌)
 - 4) 돌
 - 5)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 6) 수레를 가게 하고(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7. 다음 說教에 대하여 느낌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여기에 登場하는 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象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새끼들을 떼어놓고 잘 구르지 않는 새 수레처럼 힘들더라도 同役하면서 잘 모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에 뜻에 따라 울면서도 가야 합니다. 그 곳에서 우리의 모든 財産을 바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마저도 犧牲 祭物로 드려야 합니다.'
- 문맥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다.
8. 성경에는 偶然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 理由를 쓰시오.

있다: 偶然이란 없다는 것을 證明하기 위하여
 9. 블레셋 方伯들이 소를 가지고 試驗했는데 점수가 滿點을 넘게 나왔다. 어떤 점이 만점을 넘는다고 할 수 있을까?
 - 1) 벤세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 2) 실으니 가더라
 - 3) 울면서도 가더라
 - 4)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 5)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지한 것
 - 6) 대로로(지름길인 셈)
 10. 벤세메스가 블레셋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경내인 것은 틀림없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겁도 없이 소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 구경을 다 하고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다니?

이스라엘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 블레셋의 지배(영향력)하에 있음
 11. 원래 실로에 있던 법궤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실로에 옮기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도 실로로 옮기지

않는다.

법궤를 빼앗기던 때에 실로의 성막까지도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고고학적 유물도 이때 이스라엘이 심하게 파괴되었다고 한다)

12. 卜術者들이 가져쳐 준 贖愆祭物과 실제로 방백들이 보낸 祭物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백들의 人心이 厚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금 독종 다섯, 금 쥐 다섯 ↔ 금 독종 다섯, 금 쥐의 數갯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모든 성음의 數갯대로 (고고한 성음의 수와 시골 동리의 수까지 포함) 그만큼 혼이 났다는 뜻

13. 돌아가는 블레셋 방백들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갔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면?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이었다고 확신하며 돌아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14. 레위기에 명시된 제사법에 따르면 벤세메스에서 드린 제사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 있다. 무엇이며 그 래도 괜찮은가?

젖 나는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의미로 드림(문자적 의미에도 충실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 더 옳다)

그 외에 제사를 지낸 장소도 문제가 된다.

15. 법궤를 들여다보았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五萬은 筆寫者의 잘못이라고 해도 70인의 죽음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닌가? 다음 설명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로(하나님의 집)도 파괴되고 법궤(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빼앗기는 수난은 이스라엘의 수난이기 전에 하나님의 수난이다. 블레셋 지방의 들에서 일곱 달이나 방치되었다가 벤세메스로 돌아왔지만 거할 곳 없이 큰 돌 위에 놓인 법궤는 '머리 돌 곳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벤세메스에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었을 것인데 법궤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모양이다. 제사장이었던 호니와 비느하스조차 하나님을 몰랐으니 다른 백성들이야 말하나마나였을 것이다. 법궤는 제사장도 일 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올 수 없는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뜻이다.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고 집마저 빼앗겨 버린 형국이다. 불쌍하신 하나님

16.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 시기를 간구한 적이 있다. 마 8:28-34 그 일이 본문과 어떤 점에서 닮았을까?

굴러온 복을 스스로 차버림 (손 베일 것이 두려워 칼을 버림, 구더기 무서워)

17. 블레셋 방백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나 자신들의 신이 없더라진 일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증거를 보고도 쉽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 없이 보고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로 큰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

사무엘상 7 장

1.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옮긴 것은 불쌍한 하나님에게 다가온 溫情의 손길인가? 귀찮은 영감을 抑止로 모시는 것인가?

끌치아픈 영감 떠넘기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아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櫃를 가져갈 때의 모습과 比較해볼 필요가 있다.

2.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20년을 지키게 하였는데 아무런 복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대상 13:14와 비교해 보자.

“야! 네가 말아라”는 식으로 탐탁케 여기지 않았거나 기쁨은 없는 의무감이었거나

3. 이스라엘 온 族屬이 왜 하나님을 思慕하게 됐을까?

오랫동안 블레셋의 支配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니깐.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이 슬픈 버릇. 20년 동안 블레셋의 壓制 때문에 또는 사무엘의 노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4. 20년 동안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돌아서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단 말인가? 계시를 받았던 때가 12살이라고 본다면 벌써 30이 넘었을 텐데.

아마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다. (17,라마 = 라마다임소빔)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도 파괴되고,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5.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갖고 싶어 하시는가?

마음(3, 전심, 마음)

6. 사무엘이 백성들을 권고하는 말을 逆으로 생각해서 블레셋의 壓制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우상숭배

7.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신과 여신이다. 전쟁의 신은 우람한 근육과 무기가 강조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풍요로운 수확이 목적이므로 多産을 비는 의미에서 性的인 면이 강조되어 필연적으로 음란성을 띠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피 흘림이 수반되는 제사가 중심인 반면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은 축제와 성행위가 중심이었다. 남녀 학생이 어울려 신나게 노는 것과 공부만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한다면? 공부만 하겠다는 학생은 어딘가 모자라거나 먼 훗날을 내다보면 엄청난 자제력을 가진 학생이다.

8. 20년간이나 블레셋의 壓制를 견디다 못해 드디어 獨立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實際로 우리나라의 祖上들이 가장 먼저 한 일과 비교해 보자.

미스바에 모여서 悔改의 祈禱를 드림 ↔ 獨立軍, 亡命政府, 軍資金, 要人 暗殺

9. 그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음식을 한다는 것(잘 먹어야 싸울 것 아닌가?)

10. 블레셋 軍隊가 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가?

獨立運動을 沮止하기 위하여

11. 하나님께서 雨雹을 敵에게 내려 적을 친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雨雷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블레셋 사람에게만 돌리고 이스라엘 사람 귀에는 안 들렸을 리가 없을 테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勝利를 거두는 原因이 되는지 설명해 보자.

하늘에서 들리는 雨雷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士氣가 오른 것은 하나님의 應答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自然現象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이 달랐다고 할까? (信仰의 눈으로 보자)

12. 救濟하는 일은 우리가 말을 테니까 使徒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專念하십시오. 이것이 초대 교회에 집사가 세워진 동기이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현상일까? 다른 현상일까?

다르다. 초대교회-진심으로 사도들을 돕기 위한 제안 ↔ 본문-그냥 두렵고 대책이 없으니깐 하는 말이다.

13. 사람들은 기념으로 무언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언가를 남기기도 한다. 이런 것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기념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람을 기념하는 것 ↔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우리의 기념물도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은표의 롤라스케이트와 나의 오토바이 파스이야기 (어릴 때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받은 기억은 나중에 모든 것이 희미해질수록 또렷이 살아나는 끈이 될 것이다) 쓸데없이 올림픽 기념 주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많이 만들자

14.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禁食祈禱 때문이다. 금식기도는 놀라운 能力이 있다’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본문에 根據하여 이 말을 批判的인 視覺에서 分析한다면?

주원인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금식기도는 그 결과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금식기도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 때문이라는 답은 더더욱 아니다.

15.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평화는 영원해야 하는데 꼭 기한이 있다. 언제까지인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신앙도 독립해야 한다. 만날 아버지 신앙, 할머니 기도로 버티는 사람도 많다. 그나마 없는 사람에 비하면 큰 복이지만 빨리 독립해야 한다)

16.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린 곳이 나와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은가?

실로(성막도 파괴되고, 법궤는 빼앗긴 채 홀로 남은 사무엘, 순회하며 다스린 지역도 고향에서 가까운 좁은 지역)

17. 사무엘이 잘한 일과 잘못된 일을 찾아보자.

잘한 일: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블레셋과 싸운 것

잘못한 일: 20년간이나 어디에 있었어? 성막을 재건해야지 자기 집에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니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란 그가 좀 이상하다. 동시에 법궤를 제자리를 찾아주지 않았다. 자식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음.

사무엘상 8 장

1. 이스라엘의 마지막 士師는 누구일까?

사무엘(본문에 아들이 사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사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순회하며 다스린 지역은 아주 좁다. 반면에 이들이 사사가 된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지역이다. 아마 먼 변경을 맡고 듯하다. 그 후 왕을 세운 것은 사무엘이다.

2. 사사의 직분을 아들에게 준 다른 예가 있는가?

없다. 아들에게 보조적인 임무를 부여한 듯함

3.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어째서 이런 아들이 있는 걸까? 대체로 위대한 인물의 아들이 위대한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오히려 위대한 사람의 부모가 소문 없이 훌륭한 경우가 더 많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소감이 있으면 적어보자.

백성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좋은 지도자이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생각은 排除되어야)

4.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고민을 했길래 왕을 세우자는 요구가 왜 나왔을까? 지도자가 선하지 않고 뇌물만 좋아하고 있다. 나라 자체는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주변 국가들은 왕을 앞세워 단결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강력한 권력과 동시에 강력한 군대도 없다.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민족에게 짓밟힐 텐데.

뒷부분까지 參考하면 權限이 센 왕을 세워 왕을 中心으로하여 힘을 합하자라는 의미(20) ↔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獨立心이 강한 이야기

5. 부쪽국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데 하나님은 무슨 불만이 있어서 투덜거리는가? 자기 자리를 빼앗고 불만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진 고민의 진정한 해결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해결되는 일이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전부 우상 숭배 때문이었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왕이든 사사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그게 그것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왕 그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 강력한 왕의 통치: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사울의 실패로 확인되고 다음에 세워지는 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기본이다(라브리, 조지 물러의 삶). 인간의 통치는 속이야 어떠하던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함

6. 나중에 보면(12:3) 사무엘 자신은 결코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잘한 셈인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 외에도 지도자로서 어떤 잘못이 있는가?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나올 만큼 사무엘의 지도는 잘못이 있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이를 취하지는 않았다 해도(12:3) 지도자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7.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참고: 신 17:14)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 바람 맞은 하나님, 한두 번 바람 맞았나?

8. 하나님과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왕을 세우는 行爲 自體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국가에 壓制를 당하는 原因은 不信과 偶像崇拜에 있음에도 制度가 不實하여 그런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방법을 배우지 않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잘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외의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9.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는 것.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왕정국가보다 덜 발달된 형태인가?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도록 좀 다스리면 안 되나?

10. 사무엘이 가르치는 왕의 제도를 보면 이상하다. 선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임무 따위가 있어야 할 텐데... 사무엘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만 말하면?

왕을 세우면 이런 저런 弊端이 있다. 왕의 종이 되느니 하나님의 종이 되라.

11.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역사를 만들어왔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이스라엘의 의도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말과 이스라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함(7) ↔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20)

12.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 왕이 되지만 실패한 왕이 되고 만다. 사울의 실패와 본문의 내용과 어떤 關聯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어거지로 해놓으면 결국은 손해가 된다.

13. 왕을 세우면 어떤 弊端이 있다고 말하는가?

徵集, 勞動力 搾取(분열의 원인), 財産 奪取, 税金 徵收 (가장 아름다운 소년에서 소년은 황소와 철자가 흡사하여 오역일 가능성이 있다. 문맥상 황소가 자연스럽다)

14. 19절의 '아니로소이다'는 말은 무엇이 아니란 말인가?

앞에 나온 사무엘의 말이 왕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었음.

사무엘상 9 장

1.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된 사울의 장점을 列擧해 보자.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키 큰 소년, 집 나간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흘 동안 돌아다닌 착한 아들(성실), 부모가 걱정할 것을 아는(효성), 선견자에게 빈손으로 못가는 예의 바른, 겸손함(21)

이 모든 장점도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2.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와 비교해 보면 혹시 다른 점은 없는가?

실패를 예감케 하는 불길한 징조,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모르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뛰어나다고 왕으로 세워? 뜨거운 민족애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저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는 (별로 신앙적으로 뜨거운 것 같지도 않은) 사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것 같다. 사무엘을 모르다니.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른다고 보다는 잠시 다른 일에 몰두하여 잊었다고 보는 것이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나 사울의 경우에는 전혀 중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기준에서 선택된 것 같다)

3.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성전이나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왜 산당에서 드리는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장소가 산당이었는데.

제사를 드리던 실로와 성막은 파괴되었고 법궤는 엉뚱한 곳에 있으니 대신에 아마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 같다.

4.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울을 점찍었을까? (One day를 넣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찾으면 될 것이다. 거기 가 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법이니)

태어날 때(사울=구하여 얻은 자),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보냈을 때, 찾아 해마다 숲(사무엘의 조상 이름을 따서 지음, 라마와 거의 동일 1:1)에 왔을 때,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됐을 때

5.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분기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에서 (작은 사건이 큰일의 시작이 되는 예는 흔하다)

6.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찾아보자.

암나귀들이 집을 나감, 사무엘이 순회하지 않고 라마에 있음, 그 사실을 아는 소년들, 하인의 생각, 사무엘을 대기시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신 이유가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표현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 왕을 세우는 일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7. '마침'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연히 공교롭게도'라는 뜻이다. 예상하지 않았거나 고의성이 없이 일이 잘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14절의 '마침'은 우연일까? 아닐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사울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우연이 아닌 작정하심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 (나에게 어떤 필연의 경험이 있는가?)

8.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 '우림'과 '뭇땀'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어떻게 변했으며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선견자에게 물어보는 것, 아마 제사장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9)

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열방과 같은 왕)를 결국은 들어주시면서도 내심으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세우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통할하는 지도자(16-17)

(지도자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과 다르다. 두령이나, 족장이란 뜻) 사울의 실패는 사울 자신에게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고집스럽게 구한 데에 있다.

10.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유명한 사울을. 누가 잘못인가?

사무엘이 유명한 사람 티를 안냈거나, 사울이 선견자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거나. 전자에 답을

11.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아는데 16절은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니?

미스바 전투가 전국적인 회복이 아니고 일부였던 것 같다.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다스린 지역도 아주 좁은 지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블레셋의 영향력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

12. 사울이 왕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이었다. 정상적으로 왕이 나온다면 이 두 지파 중에서 나오는 것이 옳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25,000명 중에서 내전으로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약한 지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어떤 정치적인 유익이 있을까?

강한 두 지파의 알력을 줄일 수 있다.

통할 (統轄): 모두 거느려서 관할함

사무엘상 10 장

1.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증거는 몇 가지인 셈인가?
 - 1) 두 사람을 만날 것 : 고향 소식을 듣고 (세밀하게 2가지)
 - 2) 세 사람을 만날 것 : 예물을 받고(8)
 - 3)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 : 여호와와 신이 임할 것이며 예언을 하고, 번하리라(5)
2. 그 말 속에 나오는 악기는 몇 가지인가?

4가지 (비파, 소고, 저, 수금)
3.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이야기(1-8)를 하는가?

왕으로 세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려고 (왕으로 부름 받은 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라는 확신 없이는 잘못될 수 있음을 말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다)
4.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다만 매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해 두셨는지 해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꼼짝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어느 말 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7) →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대로 행하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주고 난 후에 사안별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하라. 모든 일에 대하여 일일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님
5. 당시의 종교적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벤엘: 세 사람이 하나님을 뵈러 감, **라마:** 사무엘의 사역 중심지, 산당이 있었음, **기브아:** 산당이 있고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함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분산되어 있었음
6.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
7.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곳은 숲이었다. 거기서 떠나가다가 셀사(2)를 지나고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나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산이 나온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만났던 그 산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거기에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에 바로 숙부의 이야기가 있는 걸로 보아서. (산=기브아)

아마 고향 근처. (하나님의 산이란 하나님의 기브아란 말이다)
8. 나도 한 때는 육상선수였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웃는다. 왜 웃는지 모르겠다. 뛰는 것을 보면 놀라지만.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다.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은? 사울이 예언하는 일
9. 어떤 사람은 '그들의 아버가 누구냐'고 했단다. 이 때 아버지는 문맥상으로 보아서 선지자들의 선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별 희한한 녀석을 제자로 삼았구나. (사울이 예언을 하거나 선지자의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왜 웃기는 일일까?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았을 것)
10. 숙부가 사무엘이 무엇이라 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울의 행위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소질이 보임
11. 미스바에 모여 왕을 선출하기 위한 제비뽑기 모임에서 특징을 두 가지 찾는다면?

하나님의 서운함과 사울의 겸손함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들 왕 만세는 불려도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
13. 사울의 왕됨을 불만으로 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랬을까?

아마 강성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이다.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다니..... 그래 우리 없이 잘 해봐라.
14. 사울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자신의 일을 하는 도중에, 오늘 맡겨진 일에 충실하자.

사무엘상 11 장

1.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한 곳이 있으면 찾아보자.

10절: 너희는 누구인가? 나하스. 그렇다면 적을 안심시키려는 술책이다.

2. 야베스 거민들의 심리 변화를 기술해 보자.

1) 나하스가 진치고 있을 때 : 큰일 났다. 항복하자. 그래도 말이나 해보자. 안 되면 종이 되는 수밖에 (혹시나 하고 말을 붙였다가 흑만 붙인 무능력자)

2) 눈을 빼야 된다니.

3) 사울 만세(어느 놈이야 사울이 왕 됨을 반대한 게, 앞장을 섰을 지도)

베냐민 지파의 할머니들은 야베스 출신이다. 그래서 더욱 사울이 반가웠을 것이며 그 고마움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다가 매장했을 것이다.

3.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확실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암몬 족 나하스의 침공,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감동하여 노를 발하게 한 것,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한 것: 적의 욕심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

4. 암몬 족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오른 쪽 눈을 다 빼면 봐주겠다.

5. 옛날의 전쟁은 요즈음 전쟁과 비기면 참으로 낭만적이고, 인간적이었나보다. 어떤 점이 그런가?

일주일만 기다려 다오. 혹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나 연락해 보고 없으면 항복할게.

6. 사울의 왕 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자는 말에 사울의 대답이 훌륭한 점이 있다면?

비판자를 수용한다. <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에 개인적 원한은 덮어두자.

7. 나하스의 실수를 하나 지적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있나 없나를 찾을 기한을 준 것, 너무 심한 자만심, 다른 이유: 아무리 빌빌거리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른 것 (약하고 어리석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8. 사울이 소를 몇 마리 잡았는가?

두 마리: 거리 - 두 마리 소가 끄는 농기구, 호리 - 한 마리 소가 끄는 농기구

9. 왕으로 선출이 되면 우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세금을 거두어 군사와 왕궁을 세우고...

사울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의식하는 왕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린다.

10. 9, 10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도록 징조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11장 전체 기사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사울을 믿고 따르도록 하심 (왕권 강화 차원)

11.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출신의 사울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 두 지파는 본의 아니게 특별한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냐민의 조상 할머니들은 대부분 야베스 출신이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

12. 사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다는데 그것은 사울의 말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말이다.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와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7c)

권위에 의한 통치여야 한다. 권력에 의한 통치와 다르다.

13.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사람이 3만? 유다는 왜 별도인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벌써 무슨 구별이 있었던 모양이다.

14. 사울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많이 모였을까? 적게 모였을까?

많이 모였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 한 사람같이 나왔다.

15. 야곱의 자손들이 100명도 채 안된 인원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지낼 동안 약 200만 명으로 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전투에 참가할 숫자를 파악했을 때 거의 60만이나 되던 숫자가(민 26:51) 400여년의 사사시대가 거의 다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33만이 모였다.

사사시대 동안 인원이 늘지 않았다.

16. 긴긴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출애굽 때와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의 그 감동과 놀라움은 어디 가고 이민족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받히는 불쌍한 나라가 되어 이제 새삼스럽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가? 온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이 1)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2)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뛰어다녀도 이 모양인가?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닌가? 3)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악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우상을 숭배한 죄

2) 지도자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아서야 한다.

3) 강력한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오직 왕을 세우기에 급급함

17. 사울의 왕 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자는 무리들을 비판한다면?

사울의 힘이 강해지자 편을 드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제비뽑기 직후에 그랬다면 칭찬할 만하지만. (바라, 내가 안 텐다고 안 카다!)

사무엘상 12 장

1. 사무엘의 告別辭에서 특별히 자신의 어떤 점이 뒤흔었다고 하는가?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았다.

2. 그래도 백성들이 불만이 있다면 한 마디 정도는 할 말이 있을 텐데 무슨 말인가? 지금은 말하지 않았지만 전에 한 말이 있다.

사무엘 당신은 깨끗했지만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3. '좀 따져 보아야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을 찾으시오.

7절, 談論하리라

4. 사무엘의 회고 내용을 요약하면 1)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2)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3) 그래서 하술, 블레셋, 모압의 압제를 받았으나 4)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기의 요약)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졌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려두고 왕을 세우라 하느냐? (백성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함)

5. 이왕에 왕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또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은가?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또 있는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확신함에도 소원을 들어 준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잘해라. (왕정하에서도 이스라엘의 안녕과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6. 밀 베는 때에 내리는 우뢰와 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느 나라고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확률이 적은 일은 그만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란 말

7. 백성들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성질이 날만도 하다. 그 옛날에 야곱이 꼭 이랬는데 그 후손이 아니라 할까봐서 그러나? 어느 말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19),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말이다.

8.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달리 섬긴 것은 무엇인가?

바알과 아스다롯 :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을 단순 비교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로 재미있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재미가 없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재미가 있다. 성적인 쾌락마저 따라오는 즐거움

9.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다. 마음껏 놀러 다니고, 좀 나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참으로 많아 보인다. 실제로 해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스릴까지 더해져서 영영 교회를 떠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가능성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일을 잊지 않는 것(24) :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빨리 자라도록 해야 한다.

10. 사무엘에게서 지도자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본을 보일 테니 따라오라. 자신이 깨끗함을 먼저 실천함

11. 교회의 성장을 잘 정비된 조직력에서 찾으려는 풍조가 있는 것 같다. 교회 조직을 가급적 세분하면 잘 자란다는 식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없을까? 본문의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즉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한가에 모든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마치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줄 모르고 왕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2.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진 고질병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근재한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신적 기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은?

22절, 하나님의 선택,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으므로 구원을 선물이라 한다.

13. 祈禱하기를 쉬면 罪인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되라는 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엘의 水準이 되는 사람이거나, 그런 立場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適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담론(談論): 담화와 의논: 의견이나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논의함

사무엘상 13 장

13, 14장을 읽으면서 다음 圖表에 맞추어 사울과 요나단을 比較해 보자.

이름	사울	요나단
關係	父	子
戰爭의 始作	끌려들어감	전쟁을 觸發시킴
戰爭에 대한 態度	두려워 失手함(현실만 봄)	도무지 겁이 없음(하나님만 봄)
戰爭에 대한 貢獻	妨害만 놓음	勝利의 原動力이 됨
하나님과 關係	다급하자 自身の 생각대로 處身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果敢하게 挑戰함
戰爭의 마무리	完結짓지 못함	

1.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과 戰鬪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요나단의 行爲를 信仰的 決斷이라 할까? 事故친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適當한 表現을 찾아보자.

얼핏 보면 벌집을 쑤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군사라고는 3,000뿐이고, 武器도 제대로 없는데 兵車가 3만, 馬兵이 6천, 武裝된 士兵은 海邊의 모래와 같은 적을 고드렸으니. 그러나 다음 장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달리 요나단은 대단히 信仰的이었음을 알게 된다. (병거 3만은 3천 혹은 일천의 잘못일 수 있다. 마병이 6,000이면 병거는 3,000이 適當한 수치이다. 히브리 글자는 숫자를 誤讀하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함)

2. 나팔소리(戰爭의 始作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웃는다. 무슨 마음으로 와서 무슨 생각으로 도망치고 숨는가?

이전의 전쟁에서는 召集에 應해서 따라다니기만 해도 이기곤 했는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確信을 심어주지 못하자 적군의 모습만 보게 되도 두려워진 것이다.

3. 블레셋의 氣勢에 기가 죽은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서 가장 非難받을 모습은?

요나단을 건너서 도망간 것

4. 사울이 처해있는 狀況을 살펴보면 우리는 합부로 사울을 辱할 수 없다. 싸우려고 準備는 하고 있으나 도저히 相對가 되지 않는다. '백성들이 떨더라'고 記錄되어 있는데 사울은 더 떨었을 것이다. 도저히 不安해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祭祀를 드린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1)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當然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祭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祭祀여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方式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方法대로야 한다(10:8-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 아무리 危急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왕이라 해도 先知者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記憶해야 한다. 더구나 사울은 첫 단추인 셈이다. 특히 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歷史는 戰爭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基本을 疏忽한 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現實에 執着한 탓이다.

2) 사울이 보기에 急했지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急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전혀 動搖되지 않는 요나단을 보라.

3)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理由는 블레셋의 壓制에서 이스라엘을 救援하기 위함이었다(9:16). 이길 수 밖에 없는 戰爭을 치르도록 되어있다는 말이다.

5. 다음 장에서 요나단의 行爲와 比較해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에게 祭物을 드렸거나 祈禱를 했다는 말이 없다.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 왜 그럴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信仰的인 行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關係가 優先이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행위는 그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다. 하나님을 고기 못먹어 결신들린 신으로 만들지 말라.

6.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指導者로 부름 받은 후 처음 받은 試驗은 律法을 입에서 떼지 말고 晝夜로 默想하라는 것이었다. 장수가 전쟁터에서 聖經공부나 하라는 것은 큰 試驗거리일 수도 있다. 여호수아는 잘 通過했으나 사울은 같은 類의 시험에 失敗하고 말았다.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決斷을 要求하신다.

7. 祭司長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한 것은 사울이 보기에(부득이) 한 일이지만 사무엘이 보기에(망령된) 일이었다. 무언가 決斷을 해야 할 시기에 내 立場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立場에서 보는 버릇을 기르자. 結果가 너무나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8. 정한 期日인 이레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 사무엘에게도 責任이 있는 것 아닌가?

期日 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의 생각이고 사울이 祭祀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期限을 어긴 것은 아니다. 단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다.

9. 사무엘이 責望하면서 내리는 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라가 길지 못할 것 - 여호와와 마음에 맞는 다른 指導者를 세우실 것(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은 '확실한 미래'란 뜻)

10.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精銳兵 2,000명도 도망가고 이제 겨우 600명 남았는데 敵軍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장 믿을만한 사무엘은 야단만 치고 돌아가 버렸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

다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펜스레 아들에게 화풀이나 하는 것 제외한다면. 야, 임마 괜히 건드려 가지고..... 자식의 잘못은 아비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11. 사울이 처한 形便은 어쩌면 그가 당할 수 있는 最惡의 형편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形便에는 關心이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關心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環境을 變化시킬 能力이 있는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보다는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信賴 與否에 더 關心이 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런 어려움을 除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시고 싶어 하신다.

12. 이스라엘에 鐵工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들의 政策에 의하여

13.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戰爭하러 갔을까?

맨손? 농기구

14. 한 번 失手에 대하여 너무 苛酷하지 않은가?

1)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더욱 잘해야 하고

2)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 달라야 함을 누누이 설명하셨기에(특별히 당부하셨음)

버리다 : 날이 무딘 연장을 불에 달궂 날카롭게 만들다.

NTV에 1절은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forty two years.*라고 되어 있다. 원어상으로는 *Saul was one year when he became king.* 으로 되어 있다. 우리말이나 NIV나 추정에 근거를 둔 표현이다. 다만 '사울이 왕이 된지 일 년이었다'는 유력한 해석이 있다고 알아두자.

사무엘상 14 장

1. 사울과 아히야. 어떤 점에서 잘 어울리는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명이 길지 않을 사람들, 아히야가 엘리의 증손자라면 엘리 집안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있는 제사장이다. 삼상 2:31-36)

2. 요나단과 부관. 잘 어울리지 않는가? 어떤 점에서

멋지다. 하나님을 依支하는 姿勢가

3. 信仰人도 常識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어야 한다. 常識 以下인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 요나단의 말에서 常識 以上인 점을 찾아보자.

1)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 싸움에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지

4. 이스라엘 사람들이 異邦人들을 輕蔑하여 부를 때 흔히 사용하든 말이 있는데 무엇일까? 다윗도 블레셋과 싸울 때 꼭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된다.

할례 없는 자(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결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추가질문-요즈음의 포경수술에 해당하는데 초등학교 학생 중에 절반 정도가 이 수술을 하는 모양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오직 이스라엘만 이런 수술을 시행했을까? : 할례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부여된 의미를 뜻함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말하는 할례는 아닌 셈이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管鮑之交 이상이다. 그런 友情이 可能한 것은 그들 둘 다 그만큼 신앙을 지녔기 때문인데 당시 狀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수 위다.)

5.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운 곳이 험한 산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위 사이(4-5) 기어 올라갔다. (12 손발로 붙잡고)

6.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한 것은 降伏하려는 줄 알고 불렀는데 1) 요나단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으며 2) 이렇게 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가?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2) 신앙에 근거한 행위가 제 삼자에게는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행위인지 아닌지는 삼자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7. 땅도 떨고, 사람도 떠는 이런 現象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干涉하셔서 (→ 요나단의 신앙이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다. 참으로 오랜 만에)

8. 사울이 거느린 600명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奇蹟이 일어났다. 요나단의 신앙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結果를 가져왔는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과정은 어떠한가?)

1)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함, 지진도 뒤따름

2)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움

3) 블레셋의 히브리 출신 군사들이 배신함(용병인지, 징병인지?)

4) 숨었거나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

9. 요나단이 部隊 내에 없음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櫃를 가져오라고 했다. (전쟁에 별 效驗이 없었음을 알고 있을 텐데. 게다가 아니라 '에봇'일 可能性이 있다고 한다)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짐을 보고는 '손을 거두라' 하고 敵陣으로 달려갔다.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했다가 中止한 셈인데 무엇이 궁금하여 그랬을까?

요나단의 安否가 궁금하여 하나님께 묻는 일을 제사장에게 시켰다가 戰勢가 有利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만 두라는 것 같다.

10. 사울이 禁食을 宣布한 것은 잘못인가? 신앙적으로 살자는데

그가 眞正으로 신앙적이었다면 일이 벌써 끝났을 것이다. 자신의 非信仰的 행위 때문에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음에도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오히려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공명심이 앞서서 무조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상황도 있다) 자신의 불안정한 믿음을 감추려고 (비의도적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체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만 결국 진실한 신앙인만 다치게 하는 영터러 신앙인과 같다.

11. 사울의 과시용 신앙으로 인한 금식 宣布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나 잘못이 있다면?

1) 피곤하여 싸움을 제대로 못한 점

2) 백성들로 하여금 피 채 먹는 失手를 誘發한 점 (소와 송아지를 동시에 금함)

3) 하나님과 同事한 요나단이 詛呪의 對象이 된 것 (죽을 뻔함)

4) 원수 갚는 일이 中止된 것(36-46)

(이때 완전한 승리를 놓친 것이 추후 다시 침략해 올 때 자신과 아들의 죽음을 초래함)

12. 사울이 한 웃기는(ironical) 말을 찾으시오.

너희가 無信하게 행하였도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13.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 말은 칭찬인가? 꾸중인가?

비난 같은데

14. 전쟁 중에 禁食을 宣布한 것 외에 또 다른 輕率함을 指摘한다면?

아들을 죽이려 한 점: 요나단은 금식 선포가 있었는지 몰랐으므로 죽을죄는 아니다. 고의성이 없는 과오이며 백성들의 말이 옳다.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레 4:3,13,14,22-24,27,28 참고

밤중에라도 블레셋을 치자 해놓고: 자신의 실수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중지되었음을 알고 다시 열심을 내자는 말 ↔ 제사장인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이것 역시 경솔한 짓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그만두어 버린 점(36↔46):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이 밝혀지자 그만 둔다? 정말 원수를 갚아야 한다면 잘못이 밝혀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추격을 계속해서 끝을 낼 수도 있었을 것 (어른이 기분이 나빠서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하자 그 이유를 알고도 그럼 그만 두세요 하고 밥상을 치워버린 행위라고 할까)

며느리가 작은 실수를 해서 시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녁상을 차렸다. "니나 무라" 그러자 며느리가 상을 치워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배고픈 시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게다. - 잘못했다고 하고 식사를 하게 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도 - 사울에게서 이런 일이 있는가?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밝혀졌으니 회개하고 다시 물어보면 답을 할 텐데 전쟁을 그만 두어버렸음. 나중에 바로 이 블레셋과 다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15.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가장 칭찬받을 만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백성들 차례가 될 것이다. 變德스럽고, 輕率한 사울에 비해서 백성들이 칭찬 받을만한 점이 있다면?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명령을 따른 것 (제대로 순종한 점), 요나단을 살림,

16. 백성들과 요나단의 범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까?

단죄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이 옳다.

17. 백성들이 어떨 때는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어떨 때는 단체로 떠들었다. 반대되는 이런 현상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요나단이 죽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말 안 하고, 막상 죽게 되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다) 결국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함 (사울에 대한 비난, 잘못을 지적하는 일인 셈)

18. 사울에 대한 기록이 다른 역사나 전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잘못한 것은 길게 서술해 놓고(13-14장) 이고 전쟁에 대하여 簡略하게 記錄하고 있음(47-48절) - 성경의 關心도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른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랑거리나 業績보다 優先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19. 블레셋이란 말을 요즘 표현으로는 어떻게 될까?

팔레스타인

半日耕 地段 :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耕) 수 있는 넓이의 땅, 약 600평

사무엘상 15 장

1.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사울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13장 사건과 15장 사이에)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2. 아말렉을 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몇 년 전 이야기일까?
이유: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출 17:8-13, 신 25:17-19)
때: 적어도 400여 년 전 (지독하신 하나님? 불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3.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받은 책망은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었다. 지금 아말렉과 싸우려고 모인 군사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만이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군사적으로 많이 자랐다(3,000명에서 21만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음.
4. 광야에서 행군하거나 가난한 점령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강성했던 유다 지파가 평균보다 밀도는 것은 왜 그럴까?
아마 잘 협조하지 않은 것 같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데 반감?)
5. 겐 사람들을 선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출 18:10) 사실은 모세의 처가식구들이다.
6.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으시오.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 진멸하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음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김 = 자신들을 위한
7.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두 가지 욕심이 보인다. 기름진 가축을 남긴 것은 물욕이다.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는 것은 무슨 욕심일까?
공명심(명예욕) -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
8.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만약 한다면 사람의 후회와 같을까? 다를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후회는 일이 그렇게 되어질 줄을 모르는 우리의 후회와는 다르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9.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쿠데타가 흔히 일어난다. 신정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즉 믿는 우리는 국가적 불행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11)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이었는데 사울도 그들의 기대를 잘 따라가고 있다. 어디서 그런 왕의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 ↔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죽은 후에 무덤도 만들지 말라하심,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약점 때문인가? 예수님의 무덤도 없다. 없어진 것을 사람들은 자꾸 복원하려 하고.
11. 사무엘의 책망에 대하여 사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여. 무엇 때문에?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자세 때문에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 ↔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
12. 사무엘의 책망에 대하여 사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생각한다. 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야곱말이다.
죽기 전에 비로소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13.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 사울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것은 탈취에만 관심이 있었다는데 사울의 말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한 것은 (자신)이고, 제물을 끌고 온 것은 (백성)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함이다.
14. 다음 구절의 뒷부분을 외워서 적으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
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5. 선생님이 안 보는 데서 "지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들고 오는 꼴이 보기 싫어서 스승의 날 선물 가져오면 패했다고 선언해 버렸다. 선물을 가져오는데 왜 패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역겹기만 하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제사가 되는가?
16. 반복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행위인가?
고기 못 먹어 환장한 사람으로 취급함 (기갈 풀린 분으로)

17.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현실화시키면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 전도, 예배.....)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예배의 형식이나 헌금의 액수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추가설명: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18.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지독하게 거역하며 반항한 예는 찾을 수가 없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수없이 받았지만 끝내 거부한 그들의 행위는 결국 무슨 죄인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숭배의 죄 (23) = 우상숭배

////////15.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이었다.////////

19. 사울이 용서를 구하는데도 사무엘은 왜 이렇게 냉혹한가? (사울의 죄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재시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실패했으며 진정한 회개로 보이지 않는다.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함

20. 사울을 꾸짖는 사무엘의 말 속에서 모순점을 찾는다면?

변개함이 없으니.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버리신다면서(변개) ↔ 순종하지 않으면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불변)

////////18. 사울의 두 번째 관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죄를 사해 달라'는 부탁과 변명이 없어짐////////

21.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딤후 6:5)'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다.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염치없이 나를 높여 달라는 부탁

22. 사무엘이 사울의 관청에 못이겨 결국 함께 갔으나 그것이 사울의 회개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무슨 의도일까?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 기회에 완수해 버리자. (악을 처형함으로) 혹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 일 것,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는 억지로 권위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서글픔

23. 아각이 왜 즐거웠을까?

정상적이라면 왕보다는 제사장이 유순할 테니까

24.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뜻이다.

25. 사무엘이 무척 슬펐나보다. 왜 이렇게 슬픈가?

하나님께서 슬프기 때문에 >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26. 사울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라를 세워 나갔다. 그럼에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전투는 처음에 실패한 블레셋과의 전투,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실패를 기록한 아말렉 전투이다. 성공한 기록은 그저 가볍게 지나가고 실패한 기록은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 심보는 무엇일까?

1)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출 17:8-16, 신 25:17-19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성경은 바꾸는 것이 좋다. 관주 이용법이나 성구 사전 이용법을 설명한다. (아말렉이 야비, 치사했음?)

2) 왜 이렇게 잔인하게 진멸하라는 것일까? 찢먹이까지 죽이는 것은 성경적인 전쟁인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이 대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3) 멸하지 않고 사로잡거나 남겨둔 이유는?

아파워서, 과시하고 싶어서, 다른 전쟁을 치를 때의 습관

4)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로잡아 왔을까?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신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짐승의 소리를 들이지 않았으면(15)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신고한 경우와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경우는 진의가 다를 수 있다.

사술(邪術) : 요사스런 술법 (점치는 행위)

사무엘상 16 장

1. 사무엘은 몇 때자마자 성전에 보내어져서 하나님과 사는 법을 배웠다. 평생을 하나님과 살았던 그가 노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슬펐다. 하나님도 슬프고 사무엘도 슬펐다. 이런 슬픔은 어떻게 해서 끝이 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너무 슬퍼할 것 없다)

2. 사무엘도 많이 늙었나보다. 사울이 죽일 것을 두려워하다니,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루 이틀 지냈느냐'면서 야단을 많이 치실 것 같기도 한데, 대신 사무엘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자.

자상하신 하나님(너무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3. 사울을 세우실 때는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을 세우시면서는 처음부터 '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복습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백성의 지도자(9장 참조)

4. 암송아지를 제사 지내는데 사용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킨 결로 봐서 되긴 되는 모양인데...

된다. - 화목제에서는 가능하다. (레 3:1-5)

5.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선지자가 오는데 왜 떨며 영접하는가?

권세를 가진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는 환영했다가 잘못하면 왕에게 혼이 나겠고, 안하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못을 범한 성읍을 방문하여 책망하는 일이 더러 있었을 것이다(장로들의 질문을 보면 예상)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 같으면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이 기쁜 일일 텐데 (잘못이 없으면 경찰이 아무 감동을 주지 않으나 죄 지은 자는 경찰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

6. 성경에서는 주로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인사할 때 '안녕'을 묻는 민족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장로들의 인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는 느낌이 좀 다르다. 이해하기 쉽도록 부정 의문문으로 고쳐보자.

책망하실 일이 있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7. 왕을 선택하는 사무엘의 기준은 주로 용모와 신장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울 때에도 준수함(9:2)과 키(10:24)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것이 훌륭한 왕의 조건은 아니다. 용모와 신장이 중요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싸움에 나서면 인격이나 마음은 잘 안보이고 용모와 키로 상대방을 눌러야 하니까. = 분간하기가 쉬우니까 (사람의 중심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그래서 믿지 않는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8. 다음 () 에 알맞은 단어를 넣고 우리의 救援문제에도 같은 原理가 適用되는지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多幸인가? 不幸인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중심)를 보느니라

9. 다음 중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대로 골라 보자.

성격, 키, 재산, 신앙, 몸무게, 인격, 정치적 배경, 겸손, 지혜, 풍채

10. 사울이 왕이 되자 사람들이 과연 왕이 될 만 하다고 했다. 적어도 외모는 그랬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너무 어리다. 이쁘고 영리하긴 하다만 왕으로 모시기에는...

11. 다윗의 점수는 외모점수인가? 중심점수인가? 왜 그런가?

빛이 붉고(머리털), 눈이 빼어나고(총기), 얼굴이 아름답더라 - 여전히 외모

여전히 외모인 이유는? 그 중심은 하나님 외에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을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있음(추가 18절, 행13:22)

12.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때 다윗은 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

아마 어려서 어른들 일에 끼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20세 미만)

13. 다윗의 위대함 때문에 기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나도 다윗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마음 먹기보다는 '다윗은 나만 할 때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이었는데 난 이게 뭐야?' 이런 막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호와와 신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실패할 뿐이다)

14. 여호와와 신과 여호와와 부리신(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의미) 악신이 하는 역할을 비교해 보자.

여호와와 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 번뇌해 함(일종의 우울증이나, 정신 착란증)

15. 사울의 병명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착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의 자리에 앉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가 어떻게 이런 병이 들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가? 원인은? 처방은?

인간의 부족함 중에는 물질이나 명예욕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 없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만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는 스웨덴이自殺律이 가장 높다는 것이나 풍요로운 현대사회에 정신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처방이다.

16. 다윗을 천거하는 소년이 다윗에게는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고 했다.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예를 찾아보자.

호기(豪氣) :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 : 사자나 곰을 쳐 죽임

무용(武勇) : 싸움에 용맹스러움 : 골리앗과 싸움, 많은 전투에서 이김(호기와 비슷)

구변(口辯) : 말솜씨 : 많은 글을 씀 (시편의 저자)

음악성 : 많은 노래를 지음

17. 음악요법을 통한 치료 (금주 씨에게 자료부탁)

18. 다윗을 보내라는 통보를 받은 이새의 느낌은?

큰일 났다? 눈치 쳤나? (그 시기가 언제일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 가는구나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출세할 사람이 생기는구나

19. 아이들 놀이에 'Princess Maker'라는 것이 있다.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행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자.

어찌 보면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왜 굳이 사무엘을 시키시는가?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그렇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 조금 수종 드는 것뿐이다. 우리가 주인인양 행세하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감사할 일이다.

20. (Nonsense) 이새의 아들 중에 고기 이름이 있나요?

삼마

※추가: 기름부음에 대하여 출 28:41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권한 이양, 성령을 주심

사무엘상 17 장

1. 잘 나가던 사울이 악신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국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어디인가?

유다에 속한 소고에 (이미 유다 경내까지 진격해 온 상태)

2. 골리앗이 본인 스스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侮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8, 9절이다. 별로 모욕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아마 순하게 번역을 해서 그럴 것이다. 말하는 내용을 잘 살려서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로 바꾸어 보든지 아니면 그 말이 어떻게 모욕이 되는지 설명해 보자.

1)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行伍를 벌렸느냐? → 싸우자고 품 잡는 거냐?

2) 너희는 사울의 臣僕이 아니냐? → 사울의 종이 되나 나의 종이 되나 한 가지(우리말의 신복은 신하라는 뜻이지만 원래 히브리말에는 신하라는 뜻 외에 종, 노예라는 뜻이 더 있다고 함)

3)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 지가 힘이 좀 세다고 지치지도 않을 말을 마구하고

4)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 야 욕하는 데도 안 나와? 이 겁쟁이들아

3. 골리앗의 고함소리를 듣고 꼼짝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처지에 대하여 한 마디 해보자.

불쌍하다. 얼마나 난감할까? 병신같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쓴 답을 정답으로 처리함)

4.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이 태산이지만 골리앗도 약만 올리고 고함지르느라고 성질도 났을 것이다. 40 일간이나 매일 성질내지 말고 쳐들어오면 될 것 아닌가? 왜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성질만 내고 있었을까? 본문에서 그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자.

서로 산 위에 진을 치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서(3)

5. (nonsense) 이새는 충신이다. 왜?

군대에 아들을 셋이나 출전

6. 12-16은 어떻게 보면 16장의 기사와 문맥이 맞지 않아 보인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심지어 후대에 삽입된 기록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순진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된다. 왜?)

1) 우선 중복이다(다윗의 소개) - 바뀐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록(16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궁궐에 들어간 과정이며 17장은 일개 시골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의 장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기록함)

2) 궁으로 보내어졌는데 또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다. - 잠시 궁궐에 근무하다가 병세가 호전되어 집에 와 있었을 수도 있다. (=다윗의 왕래 → 반복의 의미는 없이 갔다가 왔다는 뜻) - 18:2 참고

3) 만약 후대에 삽입된 기록이라면 이렇게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끼어 넣었을까? 문맥이 부자연스런 상태는 역으로 사실임을 증명하기도 한다. 가짜일수록 자연스럽다. 사기꾼일수록 말끔하다.

7.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를 여기서 찾는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위대한 신앙의 용사일지라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즉 장형 엘리압의 말이 그렇고 심부름 시키는 아버지가 징표를 받아오라는 것도 그렇다.

8. 현대전에 비기면 전쟁치고는 아주 낭만적이다. 어떤 점이?

1) 40일간 한쪽은 고함만 지르고, 또 한쪽은 숨어서 나가나 봐라.

2) 양식을 집에서 가져다 먹으면서 싸움

3) 고성, 항오

9. 다윗이 형들에게 가져간 물건은 곡식 한 에바(약 23리터), 떡 열 덩이, 치즈 열 덩이이다. 이것 때문에 짐 지키는 자를 데려갔을까? 자기가 데리고 간 하인이 아니라면 누구일까?

보급 장교 (군수담당자)

10.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건 상은?

1) 많은 재물 2) 딸 3) 자유케 하리라 (각종 부역의 면제)

11.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키나 무시무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무엇만 보이는가?

할례 없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럴 수도)

12. 말형 엘리압에 대하여 치사한 점을 지적해 보자.

골리앗에게는 썩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동생한테 큰 소리나 치고

13. 하나님 눈에 이랬던 그가 형님 눈에는 왜 그리 못마땅했을까?

하나님과 형의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보고 형은 자기 체면이나 위신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

14.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보자.

항목	골리앗	다윗
체격	대단히 크다	작다
전쟁경험	백전노장	없다
무장	완전무장	비무장
무기	칼, 창	단창, 물맷돌
지명도	양국 전체에 널리 알려짐	무명

15.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사자나 곰보다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 할례가 없기 때문이다)
16. 설령 골리앗이 사자나 곰보다 강하다 해도 못 싸울 이유가 없다고 한다. 왜?
여호와께서 권져내실 것이니
17. 사자나 곰은 수염이 없다. 그런데도 수염을 잡고 싸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참고로 '나는 머리를 잘랐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잘못하면 *I cut my head*로 옮긴 경우와 비슷하다)
번역상의 문제일 것이다. 수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턱이나 목구멍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한다.
18.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우러 가는 것이 옳다. 왜?
어차피 그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 > 갑옷이 맞는 것이 없어
19. 다윗이 벗어던진 사울의 갑옷이 오늘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입도록 강요되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벗어던져야 하는 사울의 갑옷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존중되는 인간적인 온갖 수단
20. 골리앗이 다윗을 만만하게 본 이유가 무엇인가?
작다. 비무장이다. 막대기를 들었다.
21.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이 비무장이다. 실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22. 다윗의 목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
23. 여기에 나오는 칼과 창을 우리 주변 상황으로 옮기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을 더 의지하는 모든 것 (주일 무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출세를 위하여 정당하지 않으나 빠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 <-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
23.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골리앗이 싸움에 진 이유는?
신무기에 대한 방비책이 없었음 (mask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24. 하나님의 인내심도 대단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서도 40일 간의 모욕을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 그 인내가 한꺼번에 폭발했을 것이다. 다윗의 위대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터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데에 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마에 박힌 물맷돌 <- 보통은 튕겨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된다.
25.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TV중계방송을 한다고 하자. 첫방송 때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지만 재방송 때는 시청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1) 흥미로운 요소는 대단히 많으나
2) 싸움이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려서 < 싸우는 장면은 별로 없고 서론만 길게 보여주니까 : 우리의 관심도 단순한 결과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떤 자세로 싸우게 되었는가(과정과 배경)에 있어야 한다.
26.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위반이다. 왜?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27. 다윗과 사울이 재상봉하는 장면이 좀 어색해 보인다. 사울이 다윗을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설명들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1)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가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했다.
2) 수금 타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잠깐 하다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고위층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3) 본서 저자는 다윗이 그리 유명하지 않았음에도 위대한 일을 해 낸 것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4) 16장과 17장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붙여놓았다.
5) 16장에서는 개인적인 만남에 관한 기록이나, 17장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이중 삼중으로 기록된 글이 많이 있다. 소위 고등비평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여러 사람이 여러 문서에서 짜집기를 한 결과라고 보았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이 편집자라면 이렇게 짜집기한 표를 그대로 낼까?)

28. 다윗이 가족들에게는 어린 아이였지만 목동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다. 본문 외에서 그가 진정으로 성실한 목자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자. 너무나 유명한 그의 작품 속에 있다.

시23의 고백: 그가 농땡이나 치고 대충대충 때우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없었을 것, 최선을 향한 노력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향오(行伍) : 군대를 편성한 행렬

베틀채의 모양 :

어린갑(魚鱗甲) : 비늘 모양으로 된 갑옷

늑 경갑(脛甲) : 무릎부터 발목까지 보호하는 호신구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여부스 족의 땅이었다. (삼하 5:6,7) 아마 후대에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가장 강력한 적장의 머리를 벤 사건이었기에 특별히 보관, 이장처리를 했을 것 같다.

사무엘상 18 장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는가? 현재의 다윗은 20이 안 되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이 벌써 20년 전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20년 정도의 차이는 있다.

1. 요나단과 다윗의 友情은 管鮑之交를 凌駕한다. 어떻게 이런 友情이 瞬息間에 可能할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큰일을 저지른 사람들(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싸웠던 일 ↔ 골리앗을 친 장면) : 골리앗을 칠 때 요나단은 왜 나서지 않았을까? 과거의 예로 본다면 요나단이 나설 이유가 있을 텐데

우정이 가장 깊었던 인물들 - 이들의 우정에 대하여 다시

2. 16장과 17장에서 몇 가지 모순되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그 해답이 18장에 어렵듯이 나타나 있다.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크게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전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치 않는다는 것

3. 사울의 군복과 무기를 벗어던졌던 다윗이 요나단의 것은 왜 입는가?

몸에 맞아서(1점) 마음이 변해서(0점) 이 옷은 하나님 대신이 아니라 우정의 표시요 신분과 능력의 표시이기 때문이다(2점)

4. 항상 여자들이 말썽이다. 아무리 다윗이 이뻐기로서니 왕이 있는데 그 아랫사람을 더 칭찬할 수 있나? 다윗의 수난은 여자들의 경망스러움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 옳은가? 아니라면 다시 설명해 보자.

아무리 여자들이 그랬기로서니 (사실은 옳은 이야기다) 왕이 그래야 되는가? 지도자가 아량이 부족한 탓이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5. 한동안 품었던 악신이 다시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우울증의 일종인 정신병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걱정하고 미워할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6.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죽을 각오 - 사울같이 하나님 없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무엘이 몰래 기름을 부은 이래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출세의 길을 달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 첫 번 시련이 무엇인가?

사울이 죽이려 함 = 좌천 (중앙부서에서 외지의 천부장)

8. 사울의 말 속에 어떤 간사함이 숨어 있는가?

1) 딸을 미끼로 적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의도(골리앗과 싸움으로 더 이상의 결혼지참금은 필요하지도 않음)

2) 자기의 음흉한 계획을 여호와와 싸움이라고 표현함

3) 골리앗을 죽인 것만으로 더 이상의 지참금 없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데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

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란 말은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가?

골리앗을 쳤을 때 이미 정해진 일이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그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을 때란 뜻이다. 이 약속위반은 후일에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진다.

10. 결혼 지참금으로 돈은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구해오라면 결국 어떻게 하란 말인가?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란 요구 (그러다가 지가 죽으면 더욱 좋고)

11. 다음은 사울의 독백이다. 셰익스피어가 비극 '사울왕'을 썼더라면 아마 사울이 홀로 무대를 누비며 다음과 같이 읊었을 것이다.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도 가고, 신하들도 가고, 백성들도 가고, 그래도 참을 만했는데 너 마저? 오냐 다 가거라. 다 가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소냐? 두고 보자.'

딸 미갈

12. '블레셋 방백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쳐들어오면

13. 다윗과 사울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무

야료(惹鬧) : 생트짐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짓, (발작을 일으키다)

사무엘상 19 장

1.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나?

아버지의 불의한 잘못을 더 이상 방지하지 않으려는 노력

2.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윗을 보호함으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다음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감

3. 요나단의 우정이 일반적인 우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자신의 이익과 상치되는 그를 사랑함, 그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함

4. 요나단이 다윗을 포장하여 아버지를 설득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다윗은 잘못이 없다(오히려 공만 있다)

2) 그를 죽이므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

5. 요나단이 잘하고 있는 일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과 아버지의 잘못을 설득하는 일

다윗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

6.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진짜일까? 가짜일까(요나단을 속이려는 의도)?

이 때는 분명히 진심이다. 문제는 악신이 기승을 부릴 때 제 정신이 아닌 것이 문제다.

7. 8절은 문맥상 왜 기록했을까? 문맥이 이상하지 않다면 이유를 설명해 보자.

사울이 악신의 지배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다. 즉 다윗이 궁을 세울수록 미워하며 발작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8. 사울도 힘있고 뛰어난 무술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왜 다윗이 피할 수 있었을까?

1) 제 정신이 아닌 상태라서, 2) 하나님의 도움으로, 3) 다윗이 더 재빠르기 때문

9.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다윗은 왜 자기 집에 갔을까? 도망갈 생각이 없는 걸까?

사울의 그런 행위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고비만 넘기면 제 정신을 찾는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10. 다윗의 생각은 일종의 착각인 셈이다. 그런 착각을 누가 일깨워 주었는가?

아내 미갈(사울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다. 요나단이 알려주었거나)

11. 미갈 입장에 서면 아버지와 남편 중에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12.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미갈이 한 일은 무엇인가?

1) 정보수집, 2) 탈출토록 권고, 3) 위장, 4) 군사들을 속임

13. 사울의 딸 미갈은 원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용했던 미끼인 셈이었는데 결과는 그녀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다. 무슨 느낌이 있으면 말해보자.

하나님을 떠난 의도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철저히 사울의 의도와 다르다)

14. 사울의 의도가 예상외로 양심을 알고 도망친 다윗이 왜 사무엘에게로 갔을까?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니까.

15.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예언은 좀 다른 면도 있다. 여기서의 예언은 '긍정적 의미(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자의식이 분명한)의 신령한 상태(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즉 사울의 사자들이 선지자들의 하는 대로 빠져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자들보다 사울에게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났던 모양이다. 그렇게 보아도 되는 근거는?

1) 사자들은 선지자들을 보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사울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언 상태에 빠졌음(그가 라마 나뭇에 이르기 까지 23)

2) 옷을 벗고 종일 벌거벗고 누웠음

16. 사울에 관한 이 속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속담이었을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즉 천하에 농땡이가 공부하겠다고 할 때

구두쇠가 한 톨 내겠다고 할 때

17.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요나단, 미갈, 하나님(도와주시려면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포장(褒獎): 칭찬하여 장려함

※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용례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1.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한 미래적 사실에 대한 선포 (겔 25:2-4, 29:2)	1. 이교적 선지자에 입한 종교적 현상(왕상 18:29)
2.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한 현재적 상황에 대한 질책 (렘 26:12, 겔 4:7)	2. 이교적 선지자에 의한 예언 행위 (렘 2:8, 5:31)
3. 선지자가 아닌 일반 성도에 의한 여호와께 대한 찬양 (삼상 10:1, 대상 25:2)	3. 기타의 사람에게 입한 종교적 현상 (삼하 18:10, 19:20)

사무엘상 20 장

1. 아직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단순한 발작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증거를 찾아보자.

다시 요나단(중으로)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의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점

2. 2절의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문맥에 어울리도록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

죽지 않도록 해 주겠다.

3.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윗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아는 사울이 이 문제만은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4.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나단, 사무엘, 미갈)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믿음이 좋은 다윗은 아무 염려나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증거가 본문에 있는가?

나와 사울의 사이는 한 걸음 뿐 (3 c): 하나님의 보호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5.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단순한 우정의 문제가 아니다. 두 사람의 우정에서 1) 요나단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자.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피해를 기원하는 말이다.(정치적으로는 바로 자신의 적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대하고 있다.)

2) 어떻게 해서 이런 우정이 가능한지 설명해 보자.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한다는 의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몰락마저도 좋아한다

6. 요나단의 우정이 보통의 우정이 아닌 증거는 다음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나로 죽지 않게 하라" 이 말 속에서 요나단이 예상하고 있는 전제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발언

7. 죽이려고 따라다녀 놓고도 당연히 월식 때의 식사 모임에 다윗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울의 생각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도 왔다갔다 하는 모양이다.

8. 다윗이 식사 자리에 참석치 못하는 이유를 요나단이 설명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울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화를 낼 이유가 되지 않는데 화를 내는 것은 살의가 있다는 뜻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왕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되지만)

9. 원래 화살을 쏠 때 정해둔 도망가라는 암호는 '살이 네 앞에 있다'였는데 요나단이 실제로는 어떻게 말했는가? 그 의미는? (만일의 경우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못하고 헤어질 경우라면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의 말을 해석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뜻)

추가로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고함 (상황이 아주 급하다는 암시를 더함, 아이가 다윗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10. 사울의 의도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확실하면 다윗은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떠나게 되면 요나단은 누구를 원망할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이다.(22, 42)

11.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은 참으로 슬프다. 서로가 헤어짐을 전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헤어지면 원수가 되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슬픈 이별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1) 예의를 갖추, 2) 피자 입을 맞추, 3) 함께 움, 4)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

전혀 이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별은 흔히 우리 삶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어차피 떠나야 할 이별이라면 깨끗한 모습으로 떠나는 연습을 해두자.

12.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도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 내의 개혁을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반항아(Protestant)로 낙인이 찍히고 쫓겨나온 셈이 되고 만다. 다윗도 애초부터 사울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사울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 (5)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에도 모르니 사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도망을 가도 가야겠다고 생각한 점

13. 주요 등장인물 세 사람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죄없이 고난을 당하는 다윗,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이 떠난 뒤에 거의 미쳐버린 사울

사무엘상 21 장

1. 당시 수도가 기브아였는데 두 번이나 수도를 탈출하여 도망간 곳이 한 번은 사무엘에게 갔고, 이번에는 아히멜렉에게로 갔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2. 가서 한 행위에서 다른 점을 찾는다면?

사무엘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히멜렉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히멜렉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3. 아히멜렉이 떠는 이유는 다윗이 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혼자 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사울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평소에 소신껏 살면 되는데 뭔가 찢리는 데가 있어서 권력자나 경찰을 보면 공연히 두려운 사람?

4.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야' 하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대답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와 똑같은 대목이 있다. 무엇인가?

사울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조차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말

5.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6. 性的인 이야기가 필요하면 그것이 그렇게 야하거나 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은유적으로 잘 표현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성적인 몸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 하나를 찾아보자.

그릇 (5)

7. 여기 거룩한 떡이란 성소에 진설되었던 떡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것으로 교체하고, 물려낸 것으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취급하던 떡을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해도 규정에 없이 성결여부만 확인한 채 내주어도 될까? (교회의 어떤 법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떡을 제사장만이 먹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떡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위는 규정의 위배인 것 같으나 그 정신은 준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서 추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권력자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아히멜렉이 그렇게 했을까? 혹시 권력 때문에 아히멜렉이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닐까?

8. 현재까지 다윗이 가장 많이 싸운 족속은 블레셋 족속인데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으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그곳은 다윗이 가야 할 곳은 아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만다.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미친 척해서

9. 드디어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으며 남의 기를 펴어놓을 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에도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무척 두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1) 양식도 무기도 없이 도망간 점 (떡 다섯 명이나 무엇이든지-심히 답답함)

2)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한 점

3)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적국으로 간 점

10. 아마 다윗은 신분을 숨긴 채 야기스에게로 잠시 피해 있을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하들이 겹싸게 알아차려 버렸다.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하는 말이 자기들 시각에서는 옳으나 자세히 보면 틀린 부분이 있다. 찾으시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직은 왕이 아니다. 그럼에도 왕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개념으로는 방백이 곧 왕이다. 다윗이 그 정도로 보였다는 말)

11. 다윗이 아무리 다급해도 그리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 신자가 혹시 어려움에 빠졌다 해도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방식이면 다윗처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은?

미친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한 것(아브람과 이삭이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도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갔기 때문이었던 것과 비교)

12. 대원군도 대원군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시의 권력을 쥔 자들 앞에서 거의 미친 짓을 하며 다녔다. 잔치집마다 다니면서 술과 음식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왕족임에도 '상차집 개'라는 모욕을 들었다. 다윗은 무슨 별명을 얻었는가?

미치광이

13. 소설에는 복선이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되어질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리 팔아두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필요 없는 말 같은데 나중에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다. 무엇일까?

목자장 도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14. 도역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적어도 왕의 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인 셈인데 왕의 절대적

신임 없이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외국인에게 맡겼을까?

그는 결코 외국인이 아니다. 에돔에서 귀화한 이스라엘 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전의 국적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저지를 악함을 염두에 두었을 것

15. 다윗이 도망간 가드는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인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16.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윗의 실수를 두 가지 찾는다면?

제사장에게 거짓으로 물품을 조달한 행위, 가드로 피신한 것

////12. 다윗의 연기가 훌륭했던 모양이다.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어쩌면 사울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닐까?////

항용 떡: 주식으로 매일 먹는 일반 떡 ↔ 거룩한 떡: 성소에 진설한 12개의 떡,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다.

부녀를 가까이함: 레 15:18에 의하면 성관계를 가진 자는 그 당일만 부정함

여호와 앞에: 어떤 특별한 일(제사, 성결의식 등)이 있어서 성막에 머무름

사무엘상 22 장

1. 도망자 다윗. 처지가 많이 변했다. 왕의 사위요 천부장으로서 가장 엄선된 용사들을 거느렸던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꾸념을 한다면?

- 1) 이 판국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 2) 온갖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원한 어떻게 다 풀겠나?
- 3) 군사로 쏠려니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 성질만 더러워서

2. 블레셋으로 갔다가 혼이 난 다윗이 식솔을 다 거느리고 모압으로 갔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진작에 모압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왜 그럴까?

- 1) 다윗이 모압과 싸운 적은 없다.(모압은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없다. 가나안 점령시에도 모압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 2) 다윗의 증조모 룯의 고향이다.

3.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 다니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유일한 경우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장차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본문과 비교해 보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 ↔ (여우 찾은 안식처를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 (아무런 보장도 없이) 외국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왕권이 다윗에게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유대 땅에서 사울을 핍박 받으며 도망 다니는 일이 지지세력을 모으는 반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다윗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4. 사울의 말을 보면 신하들도 반역을 꾀하고 있고 심지어 아들이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것이지 세상이 변한 게 아니다.

5.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실까? 재사장들이 억울하게 죽는데 어차피 왕을 세우지 말라하지 않더냐?

대제사장 엘리의 증손자, 비느하스의 손자, 아히둡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자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불의한 재판의 당사자는 그 일로 또 다른 심판을 초래한다)

6. 아히멜렉에게 묻는 사울의 질문에서 아히멜렉이 보기에 억울한 점은 무엇인가?

공모, 대적, 매복하여 나를 치게 함 ↔ 다윗의 말은 왕의 비밀스런 명령으로 왔다.

7. 그럼에도 아히멜렉이 그 사실을 잠시 접어두고 무슨 주장을 하는가?

1) 다윗은 왕의 훌륭한 신하이다. 2)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 아는 바가 없다

아주 당당한 모습이다. 비록 조상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아히멜렉의 죄는 아니다. 이것을 순교라 한다. (조상들의 범죄 + 사울의 불신앙 + 아히멜렉의 당당함 → 조상들에게는 징계, 사울에게는 비참한 말로의 전조, 아히멜렉에게는 순교)

8. 아히멜렉과 도역이 공히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각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말하지 않은 내용: 왕의 비밀스런 명령으로 왔다는 사실

아히멜렉: 사울의 심문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 자신을 위하여 변호할 생각이 없음, 사울 왕의 명령으로 온 줄로 알았다고 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임

도역: 아히멜렉에게 유리한 증언이므로(아예 사울이 기대하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이런 비극의 진짜 원인은 바로 도역이다.)

9. 다른 신하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유독 도역이 나서서 이런 악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돔 사람이기 때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뜻)

10.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있는데 무엇일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행위 -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로 연결됨 (아비아달은 그 후 다윗시대에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 됨, 솔로몬 시대에 반역에 가담했다가 아버지를 섬긴 공으로 죽음은 면하지만 대제사장의 자격은 박탈됨으로 결국 엘리에게 신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이루어지고 만다.

11. 지금은 정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고 앞길이 캄캄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증거가 있다. 찾아보자.

3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다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12. 정치 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다윗에게 피난처는 어디일까? 블레셋, 모압의 요새, 하나님의 성소, 아둘람 굴, 헤렛 수풀, 다음 구절에 알맞은 답을 넣어 보자.

나의 하나님이며 내 원수에게서 나를 갚으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엮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법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59)

13. 여자와 아이는 계산에 넣지 않는 이스라엘의 계산법에 따르면 여기 400명이라는 숫자는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장정들만의 숫자일 것이다. 이들을 조직하여 군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과 싸우려고 (한 번도 사울과 대항한 적이 없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고 (자위대인 셈이다)

외적과 싸우려고 (다음 장에서 블레셋과 싸운다. 즉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

14. 前 대통령 두 분(전, 노)을 비교하면서 신하들을 보면 참 재미있다. 전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그것도 광패 두목에게 하듯이) 신하가 많고, 노 대통령에게는 모조리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다. 다윗의 신하와 사울의 신하를 비교해 보자.

다윗의 신하: 어려운 처지임에도 자발적으로 모여듬

사울의 신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충성을 다하지 않음(8)

15. 모압으로 피했을 때 다시 유다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돌아보고 계시는가?

1) 제사장 아비아달이 예뻐서 가지고 자신에게로 옴

2)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심

3) 그일라 주민들의 손에서 빠져 나오게 하심

4) 요나단으로 통해서 위로하심

5) 정말 위급한 시기에 블레셋을 동원하여 벗어나게 하심

결) 경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심 - 훈련의 의미

문과 문빛장이 있는 성: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을 의미한다.

사방으로 도망 갈 수 있는 성읍과는 달리 길목을 지키고 포위하기 쉽다.

사무엘상 23 장

-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대단히 무모하다. 왜 그런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 - 사울 하나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블레셋까지 (내 코가 석자)
- 다윗과 하나님의 다음 대화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는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참 친한 사이다. 이렇게 응답을 잘해주는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자꾸 묻기만 하노
- 아비아달이 예뻐 가지고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사실은 다윗과 사울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만다. 이 때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왕인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쫓기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다.
-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일은 무엇이며 보호하시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일 :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 점, 다급할 때 블레셋을 동원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심, 가장 두려울 때 요나단을 보내서 격려하신 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지 않은 일 : 도망 다니도록 내버려 두심
이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는 것은 좀 뜻밖이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놈의 제사장 꼴이 되기는 싫으니깐.
아무리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 해도 현실은 사울이 왕이다. 사람은 이상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 신앙은 이상이고 현금은 현실이다 - 결혼 때
- 요나단의 우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 아버지에게 대한 배신이고 왕에 대한 반역이다. 다윗이 아무리 좋기로써니 이럴 수가 있을까?
우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위대한 신앙이다. 참된 우정도 바른 신앙에서 가능하다.
- 22절에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윗
-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발판으로 성장한다. 다음 각 장면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 보자.
정계 진출의 계기: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성공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
도망 다니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됨: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함
절대 절명의 순간: 블레셋의 침공으로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함
-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도 도망을 가야 할 때 참 서글펐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무슨 소득이 생겼나?
가축 (별로 소득이랄 수 있나?) 군사가 200명 늘었다.
- 사울의 다음 말은 그가 얼마나 신앙적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7절)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21)
재밌대로 신앙(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있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8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입에만 발린 신앙, 입만 살아 있는)
- 다윗이 도망 다니는 모습이 마치 유격전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유격전에서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가?
문과 문지방이 있는 성에 거할 때
- 일단 그일라를 구한 후에 다시 쫓겨 다니는데 어떤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다닌 것 같다.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13. 블레셋이 하필 이때 이스라엘을 침노한 이유가 무엇까?

오답: 다윗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답: 모른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 인도 하셨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의한 것이지 - 사람의 악한 계획마저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을까? 에בות 없을 때 만약 하나님이 대답을 잘하시면 에בות 무슨 소용이 있나?

신하들은 반대하고 하나님은 가서 구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주의?

사무엘상 24 장

1. 사울은 바쁘다 바빠. 왜?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자마자 또 다윗을 쫓아야 하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바쁘지 아는가? 퇴근 후에 한잔, 당구장, 노래방 이것을 풀-코스라고 하는데 보통 새벽 2시라야 끝이 난단다. 그것도 매주 한번 씩, 일이 생겨서 시행하지 못하면 順延.

2.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휴식을 취하다'는 뜻과 '용변을 본다'는 뜻 두 가지의 용례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참고. 삿 3:24). 여기서?

1) 옷자락을 베어도 모를 정도면 잠을 잔 것 같다.

2) 걸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보았는데 옷자락을 베었다고 볼 수도 있다.

3. 지명치곤 좀 묘하다. 들염소 바위라니. 다윗의 무리가 도대체 어떤 지형에 숨어 있었다는 말일까? 염소의 생리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가파르고 비탈진 곳, 바위투성이인 곳

4.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4절)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대하여 신하들, 다윗, 사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하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10)

사울의 생각: 사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18)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 순수한 신하들의 창작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5. 모든 주변 정황이나 신하들의 권의가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임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

2)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6.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찢렸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도 여린 탓일까요? 사울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일까요?

정치적 술수에 능하다. 관대한 무사도를 지닌 사람. - 인간적인 평가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대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라는 계산을 하고 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었다. 틀림없이 개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는 속담이 제격일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전혀 여리지 않다.(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서운 아이며, 용사였다) 사울을 존경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과 관련 때문에 마음이 찢린 것이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사울도 그에게 별 의미가 없다. 시체말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신앙이다.

7. 다윗이 사울의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발언을 고른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사울의 의사가 아니라 주변의 그릇된 신하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암시를 줌

8. 다윗은 결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말일까? 만약 아니라면 그 증거를 찾으시오.

아니다.(12)

9.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이 속담을 인용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악' 과 '악인'의 구체적인 의미는?

악: 다윗이 사울을 해치는 것

악인: 다윗 자신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

10. 사울이 보는 다윗과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과 비교해 보시다.

사울이 보는 다윗: 나보다 의롭다. 왕이 될 자.

다윗이 보는 다윗: 악인은 아니지만 죽은 개나 벼룩밖에 안 된다.

11. 역사에 가정이란 필요없는 것이지만 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은 쉽게 왕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어린 복을 될 받지 않았을까? 다윗이 고난도 많이 당하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좀 다르지 않을까?

12. 다윗의 생애를 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래도 한 가지는 정도는 실천해 보자.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으면 마음에 꼭 품고 다녀야 할 한 마디는 무엇일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3. 사무엘서의 특징 중의 하나가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를 존중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예가 두 군데나 있다. 누구 누구인가?

엘리 제사장과 한나, 사울과 다윗

14.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이런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옳을까?

미안하다. 다시는 죽일 생각을 품지 않을 테니 궁으로 함께 돌아가자.(실제로는 각자의 길을 갔음)

신원(伸冤): 법정에서 변호인이 억울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해 주는 것

사무엘상 25 장

1.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간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 북쪽,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부에 있어서 팔레스틴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다.

실권은 없다 해도 살아있는 사무엘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도움마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다윗은 더 멀리 바란 광야로 피했다가 다시 마온 광야로 돌아온다.

2. 결혼은 서로가 비슷한 모습인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공부는 못하지만 부자인 여자와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남자가 만나는 경우에는 대체로 원만한 결혼생활이 어렵다. 나발과 아비가일에서 그런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잘 어울리지 않는 점: 나발은 부자, 완고하고, 행사가 악함, 말이 안 통하는 사람, ↔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움

그 결과: 결혼이 깨어짐

(이렇게 총명하고 신앙이 좋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이방족에게 시집을 갔을까? 팔려갔을까?)

3. 양털 깎는 날을 다윗은 좋은 날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농사짓는 사람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다. 수확하는 날이니깐.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4.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1) 부자이니깐(좁 타당성에 문제도 있고, 본문도 문제가 있다고 함)

2) 오늘은 털 깎는 날이니깐

3) 평소에 풀봐준 것이 있으니

5. 공부하는 학생이 한 과목에 자신이 생기면 평달아 다른 과목도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좋은 예이지만 나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자신 있는 일이 있으면 眼下無人격이 되어 큰소리치는 경우 말이다.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말만 듣고도 놀라서 죽을 약(?)심장인 나발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고자세로 나왔을까?

경제력을 믿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던 평소 습관

6. 나발이 거주하던 갈멜 지역은 사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삼상15:12) 말하자면 사울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나발의 말 속에서도 다윗을 무시하고 사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보인다.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 실제로 자신이 못된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 도망간 종이 많았다.

2) 다윗을 보고 너도 주인에게서 떠난 도망자 아니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7. 나발의 말 속에서 갈멜 지역은 무엇이 귀한 지역임을 알 수 있나?

물 (새 떡, 새 물, 새 고기라는 말에서)

8. 다윗의 생각에는 도와준 것이 있으므로 이 정도는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고 여긴 것 같다. 위협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려 애쓴 흔적을 찾아보자.

1) 합부로 불쑥 간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는 날에 찾은 것

2) 요청하는 인사가 아주 공손한 점 (너, 집, 소유에게까지 인사)

3) 군사가 600명이지만 심부름으로 열 명만 보냈다.

9.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볼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간단하게 고쳐보자.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해보지요. 말이 안 통해요.

10. 그렇게도 신앙적이던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대단히 흥분을 한 모양이다. 사울과 멋진 모습을 보인 후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일이 잘되어 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월드컵에서 감독이 교체되고 온갖 망신을 다 당한 것도 유 ~ 선수가 선재골을 넣고 너무 흥분하여 퇴장당한 것이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한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나?

好事多魔

11.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었지만 그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다. 다윗은 이 때 무엇이라고 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

진실로 허사라(21)

사람들이 다 나 같지는 않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선을 베풀자.

12. 아비가일이 말하는 내용의 요점은?

1) 본래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니 개의치 말라

2)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친히 報讐하는 일은 여호와께 맡기시는 것이 옳다.

- 4)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데 하찮은 일로 흠잡힐 일이 없으시길 비나이다.
- 5) 벌을 줄려면 내가 받겠다.
- 6) 나중에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다.
13.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용서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다윗에게 가장 효과적인 내용은 어떤 말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여호와란 표현 8 번) ↔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용서하노라는 말 대신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한 점)
14.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고마운 점이 있다면?
한 때의 흥분으로 실수할 뻔 한 것을 막아준 점 > 양식을 많이 얻은 것
쫓겨 다니는 때에 아내가 되어준 점
15. 아주 오래 전에 내게 성경을 배우던 학생 중에서 어려운 질문을 던진 학생이 있었다.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던진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1년 정도 후에 대답을 해 주었다. 그 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인상이 베어 버렸던 모양이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났지만 예전의 그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고 지금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아마 그 때 그 질문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에게 일종의 청혼을 했다. 아비가일에게서 어떤 점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비가일의 처신에서 영리함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영리함3, 33, 신앙, 겸손함, 용기, 아름다움3)
16. 나발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 평소에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다.
2) 술을 많이 먹어서
3)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박대했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40대 돌연사와 같다(스트레스 때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때 괴롭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시던 하나님을 기억할 것
17. 아비가일도 그렇지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청혼을 하자마자, 한 번 빼보지도 않고 이렇게 달려가도 되나? 그것도 급히? '내 주의 종의 발 씻길 종(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니이다'는 뜻은? 미천하다면서도 그렇게 급히 가는 것은 말만?
1) 어쩌면 나발과 피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2) 다윗의 뛰어난 신앙에 대하여 평소 알고 있었을 것
18. 특별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단호한 결심을 시사해주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찾아보자. (참고로 성경에 이 표현이 대단히 많음에도 마리아가 천사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독해력이 전혀 없는 학자이겠지만. 눅 1:39)
일어나
19. 아비가일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있고 사울의 생명은 날아가는 물뿔들과 같다. 이 둘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생명싸개: 귀중한 물건을 싸서 소중하게 보관한다.
물뿔: 휘휘 돌려서 한 번 던지면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20.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나요?
죽은 나발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대답을 아주 빠르게 찾은 사람은 경제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 이므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많으나 나발처럼 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특히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울 것)
21. 다윗의 아내들을 소개합니다.
메랍(아내로 몸 값을 지불했으나 남의 아내가 됨), 미갈(아내가 되었으나 빼앗김, 다시 찾아옴), 아비가일(남의 아내였으나 결혼함), 아히노암(기록이 별로 없음), 밋세바(우리야를 죽이고 간통하여 얻음)
1) 가장 신앙적인 인물로 묘사된 아내는? 아비가일이다.
2) 결혼하게 된 과정이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아내는? 밋세바
3) 나중에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메랍
4) 아내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내는? 미갈

수욕(羞辱): 맹렬히 욕함 - 부끄럽고 욕되는 일
유벽(幽僻)한 곳: 산골짜기 - 깊숙하고 궁벽함

보수(報讐): 원수 갚음

신설(伸雪):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한 복수

신원설치(伸冤雪恥): 원통한 일을 풀고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림

사무엘상 26 장

1. 지난번(23:19-29)에 다윗이 가장 위험한 경우에 빠진 것도 '십'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또 이른다. 무슨 원수가 쫓길래 이러는가! 사울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십 사람들의 무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1) 장차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 (사울도 알고 있는 것)

2) 다윗을 대적하다가 패가망신에 돌연사한 나발의 일

2. 만약 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일부 사울의 신하들이 반발하겠지만 큰 문제없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의 관심이 왕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울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즉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3. 다윗이 왕이 될 줄 안다, 내 후손들을 부탁한다(24:20-21)고 말해 놓고 또 다윗을 잡으려 나온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4.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될 것이다. 공부보다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와 전도만 열심히 하면 대학가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윗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음에도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무엇을 했는가?

1) 최선을 다해서 도망다니, 2) 정탐꾼을 보내어 적정을 살핌

그렇게 믿으면 도망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정탐꾼을 보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지 다윗은 시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잠들어 있는 원수를 발견한 아비새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아비새: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구나

다윗: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나는 손을 댈 수 없다.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6. 다윗과 아비새가 바라본 현실은 같은 것이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해석(의미부여)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어쩌면 인간에게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역사를 기록한 자료)보다 사관(역사를 보는 눈)이다란 말이 그런 의미이다.

7.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도와드리면 안 되나? 안 되는 이유를 가족관계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형이 너무 잘못해서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쫓아낸다고 해도 동생이 형을 비난하거나 매를 들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

8. 자기의 원수인 사울의 경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아브넬을 꾸짖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 나면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다윗의 생각을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아브넬을 꾸짖는가?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다. 아브넬이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이다.

자신도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울의 신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일 지라도 이스라엘의 현직 왕인데 경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깐.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사실은 사울에게 돌으라고 하는 말이다: 죽일 수 있어도 결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9. 주기도문을 간성으로 외우면 괜찮지만 찬찬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찢리는 곳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찢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찢리지 않겠다. 그 증거가 어느 말인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10. 이 사건은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다. 가장 차이가 많은 점을 하나만 고른다면?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우연과 고의(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들어감)

11. 이방인이면서도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나 이후에는 성경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영영 사라져 버렸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다윗의 질문에 침묵한 이후(아히멜렉: 6, 7)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행위는 위대하지만 신앙 없이 보면 미친 짓이다.

12.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본래 다윗의 성품이 관대했다고 말하거나 정치적 의도, 즉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했지 본래부터 성품이 그랬기 때문은 아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관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용감하다면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운 일, 우리야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 충신을 죽도록 만든 일, 다윗의 성품이 관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3.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1)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메추라기는 광야의 들에 있는 것, 어쩌다 한두 마리 있을락 말락 하는 메추라기 잡으러 산에 가는 포수는 어리석다)

2)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搜索하러 나옴

14. 애초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다. 그런데 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의 진에 침투했는가?

어떻게든지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음을 설득시키려 함: 사울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인 듯싶은데 대단한 노력임

15.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25)' 이 말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사울 때문에? 아니. 그러면 왜?

대적에게 들은 말이므로: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칭찬보다 적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자. 교인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불신자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자.

상거 (相距):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

사무엘상 27 장

1. 전에도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身分을 숨기려다가 綻露나서 혼이 났지만 지금은 軍士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서로 도우는 形態인 것 같다. 1) 다윗의 計算은?

블레셋의 지경에 들어와 있으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면 블레셋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2) 아기스의 計算은?

強力한 대적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 麾下에 들어왔으니 자기의 勢力擴張에 도움이 된다.

2. 아기스의 王都에 있지 않고 따로 있으려는 1) 表面的 이유는? 2) 또 다른 裏面的 이유가 있다면? 3) 아기스가 쉽게 許諾해준 이유를 推測해 보자.

1) 종이 어찌 왕도에 거하리이까?

2) 스스로 양식이나 필요한 것을 구하려 함 (可及의 獨立的의려함) 기타 偶像崇拜나, 그곳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기에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3) 시글락은 블레셋의 남쪽 邊方(왕도 ↔ 지방 성읍, 들)이며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다.

그곳을 다윗에게 맡김으로 변방을 守備하는 셈이 된다. 수도에 이방인이 함께 살기는 불편해서

3. 다윗이 무슨 의도로 侵擄한 지역을 거짓으로 아기스에게 보고 하는가?

블레셋과 友好的인 지역(아말렉)을 노략질했으나 보고는 적대적인 지역(유다 남방)인 것으로 하여서 아기스의 信任을 얻으려 함

다윗의 속임수 : 침노하기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대답하기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

아기스의 생각: 영원히 자기의 사역자가 되리라

4. 거짓이 綻露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는?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한 점(殘忍한 짓이 아닌가? 전쟁치고 잔인하지 않은 전쟁은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될 일이다)

5. 다윗이 아기스에게 信任을 받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노략질을 한 후 즉시 보고 하러간 점 (아마 禮物을 들고 갔을 것이다), 유다 남방을 쳤다고 한 점(거짓보고한 것), 거짓이 판로 나지 않도록 남녀를 살려두지 않은 점

6.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亡하리니' 다윗의 이 생각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慎重히 살피지 않은 자신만의 輕率한 생각이다. 1) 무엇을 잊어버린 생각인가? 2)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

1) 25:30: 사울의 고백, 24:20: 아비가일, 23:17: 요나단의 고백, 16:1: 하나님의 선택

2)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勝利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失足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특히 베드로의 믿음을 도표로 그려보자.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變化無雙한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慰勞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7.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居하는 것이 과연 上策일까? 22:5에 모압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결코 유대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사울에게 쫓기던 유대 땅의 다윗과 평안하게 블레셋에 거하던 다윗을 比較하면 어떨까?

유대에 있을 때에는 사울과의 두 번 만남에서 우리는 다윗의 偉大함에 感激하고,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友情에 가슴 저려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블레셋에 있을 때에는 非信仰的인 행위가 많아진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願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 결과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세월을 지내고, 民族相殘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渦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난의 시간을 短縮하는 방법이다. (나오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나, 룻: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다가 고생하거나 敗家亡身한 사람들)

8.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에게 容恕를 求하고 反省하는 빛을 보여도 다윗은 사울의 말을 끝이듣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變化를 企待하고 그렇게 손을 베푼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함으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신앙적으로 더 빛이 난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선을 베풀기만 하는 사랑처럼.

사무엘상 28 장

1.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그 동안 잘 지내게 된 대가를 드디어 지불하게 되었다. 아기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2. 3절은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잘 보면 필요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글자 하나를 지적한다면? (단어도 아닌 글자 하나)

3절의 '있' -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였음

3. 아기스와 다윗의 다음 대화에서 다윗의 대답은 좀 애매하다. 아기스가 이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 들였는지 빈 곳에 알맞은 말은?

아기스 :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 반드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

다윗 :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기스 :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 최측근으로 삼겠다. (경호대장)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외교를 하는 사람은 말이 생명이다. 진실보다 말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 항상 달리 해석이 가능한 말을 쓴다. 상황이 불리하거나 달라지면 해석만 약간 달리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말을 쓴다. 즉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의 처지가 그런 위기감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직접 받은 적은 절대로 없다' 이런 변명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측근이 나 몰래 받았다고 하더라' 나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4.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사울은 두렵고 난감했을 것이다. 사울을 더욱 소인배처럼 만들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5.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꿈, 우림, 선지자

6. 사울과 신접한 여인과의 대화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_____에 알맞은 말은?

사울: 부탁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 _____? (누구 죽일 일 있나?)

사울: 결코 해되게 하지 않겠다.

여인: 누구를 부를까요?

사울: 사무엘을 부르라.

7. 신접한 여인이 언제 찾아온 손님이 사울인 것을 알았는가?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마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무엇인가 말을 했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신접한 순간이어서 그 때 알았거나)

8.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부탁하는 사람을 부르라는데 여인이 왜 주저하는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울이 알면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9.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이유는?

진짜 - 그의 말이 틀림이 없다는 점에서(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다)

가짜 - 죽은 자를 불러오는 행위를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나사로와 부자)

10. 이 사무엘이 한 말 중에서 사울이 가장 겁내는 말은?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11.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로서'라는 말은 해서 안 된다. 아예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할 일이지 잘못된 후에 변명을 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책을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 특히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크고 많은 범죄 행위에 장로가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사울에게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로 맹세하는 일

12. 다윗도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사무엘도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29, 30에 있다. 결과가 아주 다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아닌 지에 대한 차이

13. 불러 올라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문제는 그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아담이나, 가인에게조차 끈질기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형벌을 선언하시기 전에도 많은 질문과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으나 사울에게는 벌을 선고하는 행위조차도 싫어져버린 하나님께서 거짓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형벌을 선언하는 것조차 싫어져버린 마음. 사울이 얼마나 싫어버린바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분요(紛擾): 분란(紛亂) 분잡하고 떠들썩함

근급(窘急): 꾀죄죄로 죄듯이 마음을 괴롭히는 절박한 상태, 답답하다, 곤란하다

사무엘상 29 장

1.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참가하자니 동족과 싸워야 하고 (이것은 장차 왕이 될 자격에 치명적) 빠지자니 그 동안 아기스에게 충성하여 얻은 보금자리가 없어질 테고

2.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었다)

3.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자기 권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은 방백 다섯이 회의체를 구성하여 아기스가 대표를 맡고 있는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실권이 없다)

4. 다윗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안 그런 척 해본 말은 찾는다면?

8: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5. 블레셋 방백들의 말 중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에서 무엇으로가 가리키는 말은?

이 사람들의 머리

6. 사울에게는 되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는 일이 저절로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다.

영솔(領率): 부하, 식솔을 거느림

사무엘상 30 장

1. 지금까지 다윗이 겪은 고통 중에서 가장 참담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 1)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시절
- 2)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며 간신히 사지를 벗어난 일
- 3) 아기스 수하에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충신처럼 노력하며 지낸 세월
- 4) 시글락에서 처자와 가족을 모두 탈취당한 일

2.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블레셋 군대가 전부 전쟁에 참가하려 가고 없었기 때문 <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으로 들어간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고, 울며 살아야 한다.

3. 그러나 그런 고통마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는가?

더 큰 축복으로 (전부 도로 찾아왔고 더 많은 탈취물을 가져옴)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아니면 다윗의 자업자득이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다윗의 이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 속에서 용기를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4.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출 17:8-13, 신 25:17-19) 때문이다. 특히 피곤하여 뒹쳐진 자들을 괴롭힌 일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도 아말렉이 특별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이유인가?

군사들이 전투하러 간 사이에, 수비가 없는 사이에 (게릴라 식이다)

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고 올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점 (아말렉 족속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갔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가?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마 다윗의 결정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나서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7.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으로 하여금(29장) 회군하게 하신 이유가 본 장에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시글락이 노략을 당했으므로

8. 다윗의 군사들이 못 먹어서 허약한가 왜 200명이나 낙오를 했을까?

블레셋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바로 돌아오는 사졸 길 + 추격하는 사졸(?)이 힘들었다는 뜻,

9. 아말렉 사람들이 애초에 다윗을 건드린 것은 잘못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을 건드려 놓았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저지른 또 다른 작은 잘못이 있다면?

병든 종을 합부로 버리고 간 것 - 그가 다윗의 길잡이가 됨

10.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예를 든다면?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다급한 중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는 어찌 보면 작은 일인 듯싶으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11. 사람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렇고. 그런 예를 찾아보자.

다윗을 돌로 치자하더니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윗의 탈취물'이라고 다윗에게 공을 돌렸다.

12.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자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다윗: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음(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공평하게 나누자)

악한 자와 비류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함

13.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과 하나님의 대답을 비교해 보자. 또 아말렉을 추격할 때 원한 것과 싸움 후의 결과와 비교해 보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셨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보상하고 남도록 주심)

미치겠나이까? -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라.

14. 28장은 사울에 관한 기사이고, 30장은 다윗에 대한 기사이다. 이 두 장에서 이 두 사람은 대단히 대조적이다. 어떤 점이 가장 대조적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15. 다윗이 유다의 여러 곳과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셨다. 망명 중임에도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사무엘상 31 장

1. 사무엘이 등장한 이래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야말로 원한을 갚을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이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근래 드물게 보는 패배인 셈이다. 그런데 잘 보면 전쟁의 경과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에 대한 기록만 잔뜩 있다.

사울의 죽음

2. 사울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탓이다. 그런 그가 할례 없는 자에게 받는 모욕을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혹은 비슷한 사례를 든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는 그저 형식적이기만한 신앙

교회출석도 않으면서 내가 이래도 SFC 선배인데 하면서 간섭하는 경우

할례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우월감의 표시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않으면서 할례 없는 자에게 받는 모욕은 왜 싫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외양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3. 참으로 안타까운 전쟁이며, 비참한 죽음이다. 어떤 점이 안타까운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많은 백성이 고난을 받은 점

특히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은 점(그의 갑옷이 아스다롯의 신당에 바쳐짐)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4.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용기를 내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특별히 무슨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11장에서 암몬 족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봐주겠다고 모욕을 했을 때 사울의 인도로 구원을 받은 적이 있다.

5. 30장의 다윗과 31장의 사울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윗의 풍성한 나눔(승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패전)